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1-2



정답과 해설

1 별, 하늘, 사람

(1) 서시

꼭꼭 확인 문제

21쪽

1. ③ 2. 밤 3. ② 4. ① 5. 양심을 지키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다.

1. 이 시는 '과거-미래-현재'의 시상 전개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괴로워했다'(과거를 나타내는 시어), '사랑해야지', '걸어가야겠다'(미래를 나타내는 시어), '오늘 밤', '스치운다'(현재를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에는 '하늘', '별', '바람'과 같은 자연물들이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시어들은 이 시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②, ④ 말하는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양심을 지키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담하고 고백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 ⑤ 말하는 이는 2연에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시인이 인식하는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2. 이 시에서 '밤'은 어둠과 암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시어로,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3.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비록 자신이 암울한 상황에 있지만, 성찰적 자세를 통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준다.
4. 이 시의 2연에 나오는 '바람'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시어로, 현실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을 뜻한다.
5.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

시험엔 이렇게!!

22~24쪽

1. (1) 밤 (2) 길 (3) 하늘 (4) 별 2. 바람 3. ② 4. ① 5.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하면서 '나'의 길을 가고 싶다. 6. ④ 7. ④

1. 이 시에서 '밤'은 말하는 이가 처한 어두운 현실, 즉 일제 강점하의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길'은 말하는 이가 걸어가야 할 숙명을, '하늘'은 말하는 이에게 있어 윤리적 판단의 절대적 기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별'은 말하는 이가 보는 희망, 이상적 삶의 세계로 '바람'과 대립되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2. 이 시에서 '바람'은 말하는 이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로, 말하는 이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지식 창고 - 1연 3행의 '바람'과 2연의 '바람'

1연 3행의 '바람'은 화자의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말하는 이의 내면적 갈등,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2연에서의 '바람'은 현실 상황과 관련된 뜻을 지닌다. '별'과 대조되는 '바람'은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삶이나 지켜오고 있는 양심을 흔들리게 하는 '식민지 상황과 같은 외부에서 오는 현실적 시련'을 뜻한다.

3. 이 시에서 '별'과 '하늘', '길'은 말하는 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받아들이는 대상이다. 반면에 '밤'과 '바람'은 일제의 강점이라는 어두운 현실과 거기서 오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므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어이다.
4. 1연의 1~4행에는 과거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1연의 5~8행에는 미래의 삶에 대한 다짐과 의지가, 2연에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말하는 이의 인식이 드러난다.
5. 이 시의 말하는 이인 '나'는 1연의 5~8행에서 곳곳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6. '나'는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늘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암울하고 힘겨운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순결한 삶을 살고자 의지를 다지는 인물이다.
- ②, ③ '나'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 방황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 시의 '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⑤ 암울하고 힘겨운 현실을 '밤'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이 시의 '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7. 윤동주 시인은 시에서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의 '바람'은 시인의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시인의 내면적 갈등,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인이 진학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오답 해설

①, ② 「서시」는 1941년에 지어진 시로, 시인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밤'이라는 시어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⑤ 윤동주 시인의 삶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서시」의 '나'는 일제 강점기 지식인으로서 고뇌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의지를 다지며 자신의 길을 가려 했던 윤동주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27쪽

1. ③ 2. ③ 3. ② 4. ③ 5. ① 6. 사랑해야지, 걸어가야겠다 7.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한다.

1.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경우는 시조와 같은 정형시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시는 자유시로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과 같은 운율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운율을 내재율이라고 한다.

오답 해설

② '하늘, 별'은 긍정적 이미지로, '바람, 밤'은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된 시어이다. 이렇게 대립되는 이미지의 시어로 시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④ '스치운다'는 '스친다'가 맞는 표현이지만 시적인 효과를 위해 '스치운다'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시에서는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지식 참고 - 시적 허용

산문적인 진술에서는 어법에 맞지 않는 비문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문장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시에서는 허용하

는 것을 말한다.

2. 이 시는 '과거-미래-현재'의 순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은 1연의 5~8행이다.
3. 부끄러움 없는 삶을 소망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로 볼 때 '다짐했다.'라는 서술어가 ㉠ 뒤에 이어질 서술어로 가장 적절하다.
4. ㉡ '길'은 암담한 현실에서의 방향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걸어가야 할 운명, 숙명'을 의미한다.
5.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는 것은 부끄러움 없는 삶을 곳곳이 살겠다는 것이므로, 한번 정한 길은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6. 말하는 이는 '사랑해야지', '걸어가야겠다'와 같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삶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7. 시인이 이 시를 창작했던 시기는 일제 강점기로, 당시의 현실은 일제의 핍박으로 매우 어렵고 암울했다. 그러나 시인은 현실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양심을 지키며 살고자 소망하였다.

(2) 하늘은 맑건만

꼭꼭 확인 문제

31~55쪽

1. ④ 2. ④ 3. ② 4. 거스름돈 5. ② 6.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7. ⑤ 8. ② 9. ③ 10. ⑤ 11. 거스름돈이 너무 많아서 12.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13. ⑤ 14. ④ 15. ⑤ 16. ① 17. ㉠: 반동 인물, ㉡: 입체적 인물 18. ㉢에서 수만은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마음껏 쓰자고 한다. 그러자 문기는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라고 묻고, 수만은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라고 대답한다. 이 대화에서 문기의 성격은 소극적이고, 수만은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19. ④ 20. ② 21. ④ 22. ⑤ 23. 무릎을 꿇고 앉지 않을 수 없었다. 24. ③ 25. ⑤ 26. ① 27. 얼굴이 달아올랐다. 낮이 뜨거워졌다. 28. ③ 29. 삼촌을 속인 것과 써서는 아니 될 돈을 쓴 것 30. (1) 길바닥에 떨어뜨림. (2) 흐르는 물 위로 던져 버림. (3) 고깃간 주인 집

안마당을 향해 던짐. 31.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 32. ④ 33. ⑤ 34. ⑤ 35.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도 모두 서술한다. 36. ④ 37. ⑤ 38. ⑤ 39.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 줄을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한다. 문기의 성격은 소극적이다. 40. 수만과의 약속을 어겨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수만이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41. ⑤ 42. ④ 43. ④ 44. 수만이는 내밀었던 손으로 대뜸 먹살을 잡는다. 45. ① 46. ④ 47. ⑤ 48. ① 49. ② 50. '문기'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문기'를 괴롭히고 협박했다. 51. ① 52. ③ 53. ⑤ 54. ③ 55. ① 56. ① 57. 숙모의 돈을 훔친 잘못으로 얼굴을 뿔뿔이 들고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58. ⑤ 59. 자신 때문에 누명을 쓰고 쫓겨난 점수의 울음소리를 듣고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60. ② 61. ⑤ 62. 수신 63. ③ 64. ③ 65. ④ 66. ⑤ 67.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린 것, 숙모의 돈을 훔친 것, 자신이 훔친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것 68. ① 69. ① 70. ④ 71. 고깃간 주인이 잘못 거슬러 준 돈을 써 버린 것, 보장 안의 돈을 훔쳐 낸 것 72. 제목 '하늘은 맑건만'은 문기의 정직하지 못한 상황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문기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73. 하늘을 뿔뿔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74. ②

1. 이 글의 갈래는 소설이다. 소설은 현실 세계에서 있을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이다.

오답 해설

①은 설명문, ②는 시, ③은 논설문, ⑤는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2. 이 글은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구성 방식은 액자식 구성 방식이다.

오답 해설

- ① 문기는 공과 쌍안경이 사라지자 누가 가져갔는지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② 시간적 배경이 현재에서 며칠 전의 일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③ 이 글은 인물과 배경,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발단 단계에 해당한다.
 ⑤ 이 글에는 '지전, 고깃간, 둥구미, 은전' 등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타나 있다.

3. 이 글은 1938년 잡지 『소년』에 실린 소설이다. 이 글에 나오는 '지전', '고깃간', '둥구미', '은전' 등은 1930년대에 사용되었던 말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삼거리'는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말이므로 시대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①에서 불안해하는 문기의 현재 모습을 제시한 뒤, ②에서 문기가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기를 사러 갔다가 고깃간 주인의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과거의 일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①에 제시된 문기의 불안 심리가 거스름돈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은 문기가 자신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감추고 오히려 태연한 듯 행동하는 장면이다.

6. 문기는 누군가가 공과 쌍안경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난 후 숙모의 눈치를 보며 작은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일이 날 것이라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7.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8. 문기는 자신이 일 원짜리를 냈는지, 십 원짜리를 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고깃간 주인에게 이를 묻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 문기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9. ④는 구성 단계상 전개에 해당한다. 전개는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로, 인물의 갈등이 시작된다.

오답 해설

①은 절정, ②는 결말, ④는 위기, ⑤는 발단에 해당한다.

10. 수만은 문기로 하여금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11. 문기는 일 원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주자 영문을 몰라 얼떨떨한 상황이다.

12. 소설에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새로운 사건을 예고한다. 이 글에서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는 수만은 문기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13. 소설을 감상할 때에는 사건의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 상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주변 인물이 그 인물을 대하는 태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15. ‘활동사진’은 ‘영화’를 가리키는 옛말로, 시대적 배경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6. 6에서 문기는 처음에는 남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사면서 점차 기쁨을 느낀다.

17. 소설의 인물은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인물의 역할에 따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동 인물은 주인공이고 반동 인물은 주인공과 대립·갈등하는 인물이다. 또 인물의 성격 변화 여부에 따라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눌 수 있다.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나 태도에 변화가 없는 인물이고,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나 태도가 변하는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문기는 주동 인물, 입체적 인물이고 수만은 반동 인물, 평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8. 등장인물의 대사를 잘 살펴보면 성격이 드러난다.

19. 이 작품은 1938년에 『소년』이라는 잡지에 실린 소설로,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 속 주인공인 문기는 고깃간 주인에게서 거스름돈을 더 받은 뒤 친구 수만의 땀에 빠져 그 돈을 써 버리고 갈등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문기의 심리가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문기의 심리 상태가 변화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의 배경은 농촌이 아니라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붐비는 삼거리, 활동사진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20. 이 소설은 사건의 진행이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현재로 바뀌며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성 방식은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21. 삼촌이 부르는데도 문기가 방 안에서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문기가 더 받은 거스름돈을 수만과 함께 쓰고 다녔는데 자신이 산 물건들이 사라지자 삼촌에게 들통이 난 것 같아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2. 삼촌은 “네 말이 옳겠지. 설마 내가 날 속이기가 하겠니?”라고 말하며 문기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 이렇게 자신을 믿어 주는 삼촌에게 거짓말을 하는 문기는 삼촌

께 죄송한 마음이 들 것이다.

23. 문기가 저녁 식사를 하는 삼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통해 삼촌을 매우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8과 9의 내용을 통해 문기는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생계를 꾸릴 처지가 안 되어 어려서부터 삼촌 내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 왔음을 알 수 있다.

25. 삼촌은 문기의 행동이 전과 달라지자 행여 성실하지 못한 아이들과 어울려 나쁜 길로 빠질까 봐 걱정되어 야단치는 것이다.

26. 이 글에서 삼촌은 엄격하고 곧은 성격임이, 문기는 착하고 순진하고 소극적인 성격임이 드러난다.

27. 삼촌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난 뒤에 문기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얼굴이 달아올랐다.’와 ‘낮이 뜨거워지는’이다. 이것을 ‘주어+서술어’의 형태로 쓰면 ‘얼굴이 달아올랐다.’, ‘낮이 뜨거워졌다.’이다.

28. ‘허한’은 ‘터무니없는’ 정도의 낱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29. 문기가 아랫방에 내려와 반성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문기는 삼촌을 속인 것과 써서는 아니 될 돈을 쓴 것이 잘못이라고 느끼고 있다.

30. 삼촌에게 꾸중을 듣고 난 후 죄책감이 든 문기는 잘못 받은 돈으로 산 물건을 버리고, 남은 돈은 돌려주기로 한다.

31.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도 돌려주고 난 뒤 죄책감에서 벗어난 문기의 심리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이다.

32. 이 소설에서 수만은 주인공 문기와 대립하는 인물이다. 삼촌의 꾸중을 듣고 나서 쌍안경과 공을 버리고 돈도 돌려준 문기 앞에 수만이 등장함으로써 문기가 또 다른 사건과 갈등을 겪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3. 이 글에서 문기는 삼촌의 꾸중을 듣고 난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과 쌍안경을 버리러 나온다. 킁킁 해질수록 더 허영게 드러나 보이는 커다란 공을 남이 볼까 두려워 옆으로 꺾다 뒤로 돌렸다 하며 사람의 눈을 피한다. 또 길에 슬그머니 쌍안경을 버리고 재빨리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간다. 길 가는 사람이 없기를 기다렸다가 개천에 공을 버린다. 따라서 ㉠~㉢은 모두 자신의 행동을 들킬까 봐 불안해하는 문기의 심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 ‘어깨가 거뜨했다.’는 물건을 버리고 돈을 주인에게 돌려준 뒤에 부담감을 덜게 된 문기의 심리를 드러낸다.

34. ‘문기는 두 번 다시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백번 다지며 집을 향해 돌아간다. 그러나 문기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벗을 수 없었다.’에서 ‘허물을 벗다’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 새로워지다.’라는 뜻이다.

35. 이 작품의 서술자는 문기의 심리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을 모두 알고 있다. 이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인 소설의 특징이다.

36. 소설에서 갈등은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사건을 발생시키고 진행시킨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제가 드러나고, 극적 긴장감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인물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외적 갈등도 드러난다. 소설의 종류에 따라 갈등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37. 12에서는 환등 틀을 사러 가자는 수만과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문기의 갈등이 주로 나타난다. 이는 인물 과 인물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38. 이 글에서 문기와 수만이 갈등하는 원인은 문기가 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수만은 문기가 돈을 혼자 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39.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은 말이나 행동, 대상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드러난다. 이 글에는 문기의 소극적인 성격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은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 줄을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한다.’이다.

40. 문기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남은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지만, 그 돈을 함께 쓰기로 약속했던 수만을 보자 당혹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41. ㉠은 ‘어떠한 일을 하는 도중이나 기회’를 의미한다.

42. 문기는 수만이 자기가 한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43. 수만의 말은 문기를 겁먹게 하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 하는 말로 폭력적이다.

44. 문기와 수만의 외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돈이 없다는 문기의 말을 듣고 수만이 문기의 목살을 잡는 부분이다.

45. 앞부분의 내용으로 보아, 문기가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은 일을 가리키므로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도적질’이다.

46. ㉡은 문기에게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 수만이 약속을 저버린 문기에게 양값음을 하는 행동이다.

47. ‘골리다’는 ‘상대편을 놀리어 약을 올리거나 골이 나게 하다.’라는 뜻이다.

오답 해설

① ‘약조’는 ‘조건을 붙여서 약속함.’이라는 뜻이다.

② ‘느물대다’는 ‘태도나 행동이 자꾸 능글맞다.’라는 뜻이므로 ‘느물대거든’은 ‘능글맞거든’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무춤하고’는 ‘놀라거나 어색하여 동작을 멈추고’라는 뜻이므로 ‘멈칫하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추군추군하게’는 ‘몹시 끈질기게’라는 뜻이다.

48. 이 소설에서 15는 구성 단계상 ‘위기’에 해당한다. ‘위기’는 인물의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이다.

오답 해설

②는 절정, ③은 결말, ④는 전개, ⑤는 발단에 대한 설명이다.

49. 수만은 문기에게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문기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비열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50. 수만은 문기가 자기 혼자 돈을 쓰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문기를 괴롭히고 협박하였다.

51. ‘풍기다’는 ‘소문을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52. 문기는 사건을 이끌어 가는 주동 인물이며 문기와 대립하고 있는 수만은 반동 인물이다. 문기와 수만은 모두 사건을 이끌어 가는 주요 인물이다.

53.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늦게 배운 일에 매우 열중한다는 뜻이다. 문기가 숙모의 돈까지 훔치게 된 것은 수만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서일 뿐, 돈

을 훔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문기의 상황을 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①~④는 모두 수만의 협박에 숙모의 돈까지 훔쳐 고민이 더 커진 문기의 상황과 의미가 통한다.

오답 해설

- ① 옆친 데 댔친 격이다.: 좋지 않은 일이 거듭 생김을 뜻하는 말이다.
- ② 갈수록 첩첩산중: 일이 순조롭게 나아가지 못하고 갈수록 힘들고 어렵게 꼬이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 ③ 언 발에 오줌 누기: 눈앞의 급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한 임시변통이 결과적으로 더 나쁘게 되었을 때 하는 말이다.
- ④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작은 힘으로 될 일을 기회를 놓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 54. 작가는 등장인물이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갈등을 유발하며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17에서 문기는 수만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에게 가져다 준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문기는 마음이 여리고 소심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55. 문기가 돈을 훔친 것 때문에 19에서 아무 죄도 없는 점순이 의심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해 문기는 죄책감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 56. 문기가 범한 첫 번째 허물은 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수만과 함께 써 버린 일이다.
- 57. 수만의 괴롭힘 때문에 문기는 결국 숙모의 돈을 훔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뒤통이 얼굴을 들고 집에 갈 수 없는 것이다.
- 58. 죄책감에 짓눌려 있기에 문기는 하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따라서 ‘하늘’은 문기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자 양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59. 문기는 자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점순이의 울음 소리를 듣고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 60. 문기가 선생님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찢리기 때문이다.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이 드러날까 걱정이 되어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실을

나타내게 된다는 뜻인 ‘도둑이 제 발 저리다.’라는 속담과 의미가 통한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말이란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말이란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하는 데 따라서 아주 다르게 들린다는 말이다.
- 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낸다는 뜻이다.

- 61. 문기가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이다.
- 62. ‘수신’은 일제 강점기의 도덕 과목을 말한다.
- 63. 문기의 교통사고는 갈등의 극적인 해소를 가져오는 계기이지만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없다.
- 64. 이 소설에서 22~23은 구성 단계상 절정에 해당한다. 절정은 인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이다.
- 65. 자신의 잘못으로 괴로워하는 문기는 집으로 돌아가 삼촌과 숙모를 볼 자신이 없다.
- 66. 문기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건은 극적인 사건의 전환을 가져온다.
- 67. 문기가 ‘먼저보다 갑절 무겁고 퍽퍽한 마음이었다. 도저히 문기의 약한 어깨로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놀림이다.’와 같이 내면적 갈등을 겪는 이유는 문기가 저지른 세 가지 잘못 때문이다. 즉,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그냥 써 버린 것부터 시작하여 숙모의 돈을 훔치고 그 때문에 점순이 누명을 쓰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문기의 잘못이다.
- 68. ‘책보’는 책을 쓰는 보자기를 가리키는 말로 오늘날 책가방에 해당한다.

69. 이 소설에서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다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70. 문기의 고백을 들은 삼촌의 행동을 자유롭게 상상해 볼 수 있다. 문기의 심정을 이해하고 용서하거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문기를 위로하거나, 문기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거나, 문기를 데리고 고깃간 주인에게 가서 돈을 물어 주는 것은 타당하나 문기를 괴롭힌 수만에게 똑같이 복수를 하라고 충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71. 문기는 일이 생기게 된 발단이 된 사건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서술하고 있다. 고깃간 주인이 잘못 거슬러 준 돈을 써 버린 것, 붓장 안의 돈을 훔친 것이 이 글에 제시된 문기의 고백 내용이다.

72. 이 글의 결말 부분을 보면 '마음이 맑아지며 따라 몸도 가뜰해진다.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을 뚝뚝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맑은 하늘'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마음이 무겁고 어둡기만 한 문기에게 뚝뚝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남을 뚝뚝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하늘은 맑건만'이라는 제목은 문기의 정직하지 못한 상황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73. 문기가 삼촌에게 모든 것을 고백한 뒤의 후련한 심정을 '하늘을 뚝뚝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74. 삼촌에게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한 후 문기가 지닌 마음의 갈등은 사라지게 된다.

시험엔 이렇게!!

56~59쪽

1. ④ 2. ④ 3. ② 4. 다른 사람의 말에 잘 넘어가는 편이다. / 의존적이고 소심하다. /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착한 심성을 지녔다. 5. ② 6. 부끄러워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다. 7.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8. ① 9. ③

1. 수만은 남은 돈을 돌려줬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남은 돈을 혼자 쓰려고 문기가 술책을 부린다고 생각하

고 있다. 따라서 수만이 문기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사건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2. 고깃간에서 잘못 거슬러 받은 '거스름돈' 때문에 문기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3.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결말은 갈등이 해결되고 인물의 운명이 정해짐으로써 드러난다. 갈등 자체가 결말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4. 수만의 꾀에 빠져 잘못된 행동을 하는 모습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해결 방안을 찾아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문기가 의존적이고 소심하며 여린 심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5. 문기는 수만의 협박에 견디다 못해 붓장 안의 돈을 훔치지만 점순이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되어 죄책감은 더욱 커지고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심리적 갈등이 심해진다.

6. 수만의 협박을 못 이기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수신 시간에 정직에 관해 배운 뒤 더욱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져 있는 문기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장면이다.

7. 문기는 양심을 속이는 행동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뚝뚝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8. 죄책감으로 인한 문기의 모든 갈등은 삼촌께 사실을 모두 고백하고 나서야 해결된다.

9. 문기가 괴로워한 것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사소한 잘못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64~67쪽

1. ④ 2. ① 3. ④ 4. ⑤ 5.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기에게 얄은피를 알려 주는 인물로, 문기를 부추겨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불러일으킨다. 6. ③ 7. ① 8. ③ 9. 숙모에게 확인을 한 뒤 곧바로 고깃간 주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양심에 걸려 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10. ⑤ 11. ① 12. ④ 13. 붓장 안에 있는 숙모의 돈을 훔친 것을 말한다. 14. ⑤ 15. ③ 16. ① 17. 작은아버지에게 자기가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모두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18. 문기는 뚝뚝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이러한 깨달음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으로 수만과 물건도 사고 군 것질을 하였고, 그 뒤 물건을 삼촌에게 들고 혼계를 듣는다. 이 상황에서 문기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에서는 '은전', '일 원'과 같이 오늘날과 다른 화폐 단위를 쓰고 있다.
 ② 이 글에는 액자식 구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잘못 받는 사건은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⑤ 문기가 걱정되어서 혼계하는 삼촌의 말을 듣고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어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지식 창고 - 액자식 구성

사진이나 그림이 액자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성을 말한다. 이야기의 핵심 내용인 내부 이야기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이야기로 나뉜다.

2. 이 글은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서술하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를 모두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다.
3. (나)~(라)는 며칠 전 문기가 고깃간 주인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더 받고 그 돈으로 공과 쌍안경을 산 상황을 보여 주고, (가)는 그때 산 물건들이 없어져 불안해하는 문기의 모습을, (마)는 그 물건들 때문에 삼촌에게 혼계를 듣는 상황을 보여 주므로, 실제 사건이 일어난 상황은 (나)-(다)-(라)-(가)-(마) 순임을 알 수 있다.
4. 문기가 잘못된 점은 엄하게 꾸짖지만 그러면서도 문기가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보살피 주는 점으로 보아 삼촌은 마음이 따뜻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5. 사건이 전개되면서 수만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때 수만이 어떤 인물인지를 수만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파악하면서 작품에서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
6. 문기는 으스스한 골목을 걸을 때는 돈을 써도 될까 하는 죄책감으로 두려움을 느끼다가 밝은 한길로 나오자 기쁨을 느끼고 있다.

7. 문기는 며칠 전 고깃간 주인이 잘못 거슬러 준 돈으로 산 물건이 없어지자 삼촌과 숙모에게 그 물건이 발각되었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문기가 숙모의 돈을 훔친 것은 나중에 수만에게 협박을 받은 뒤 일어난 일이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갈등을 겪게 되므로 ㉠은 문기에게 갈등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상점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사고 싶은 마음에 기쁨으로 들떠 있는 문기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④ ㉠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가) 상황에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⑤ 문기는 삼촌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러한 심리가 ㉠과 같이 나타난 것이다.

8. '삼거리'는 '세 갈래로 나누어진 길'을 뜻하는 말로 요즘에도 쓰는 단어이므로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안반'은 떡을 칠 때 쓰는 나무판을 의미하는 옛말이다.
 ② '지전'은 '지폐'를 의미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다.
 ④ '고깃간'은 오늘날 '정육점'으로 불린다.
 ⑤ '활동사진'은 '영화'의 옛 이름이다.
9. 제시된 답 외에도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고깃간 주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이다. 나중에 고깃간 주인이 기억을 하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등과 같은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 글은 작가가 현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해 허구적으로 꾸며 쓴 소설이다. ①~④는 모두 소설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⑤는 수필의 특성이다.
11. 문기는 수만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숙모의 돈을 훔쳐 문기에게 건넨 것이다. 수만과 같이 합의하여 숙모의 돈을 훔친 것은 아니다.
12. (가)에서 두 번 다시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나)에서 수만의 협박을 무시하지 못하고 울상을 짓는 문기의 태도로 볼 때 문기는 순진하고 소심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기를 협박하며 결국

돈을 빼앗아 내는 수만의 행동으로 볼 때 수만은 욕심이 많고 비열한 성격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3. 문기가 저지른 '첫 번째 허물'은 앞서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며, '두 번째 허물'은 문기가 수만의 협박에 못 이겨 숙모의 돈을 훔친 것을 말한다.

14. 이 글은 사건 진행에 따른 문기의 심리 변화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보다 시대적 배경에 초점을 맞춰 읽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감상 방법이다.

15. (라)는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말 부분이다. 이 장면에서 삼촌은 문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것이 예상되므로 둘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16. ㉠은 잘못을 저지른 문기가 선생님의 수업 내용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이므로 '도둑이 제 발 저리다.'와 가장 잘 어울린다.

오답 해설

②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소문은 빨리 전달되므로 말을 조심하라는 뜻을 담은 속담이다.

③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랴.: 사실과 원인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담은 속담이다.

④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하게 된다는 뜻을 담은 속담이다.

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속담이다.

17. ㉡은 문기가 삼촌에게 모든 것을 자백함에 따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음을 나타낸 것이다.

18. 문기는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이고 이러한 다짐이 문기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3) 관찰아

꼭꼭 확인 문제

71~73쪽

1. ⑤ 2. ④ 3. ② 4. '나'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 '나'가 소외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5. ③ 6. ④ 7. ① 8. ④ 9. '나'는 힘들 때마다 어릴 적에 골목길에서 들은 '관찰아.'라는 말을 떠올리고 힘을 냈기 때문이다.

1.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다. 수필은 고백적인 성격의 글로 글쓴이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나 자기 생각, 느낌을 솔직하게 서술한 글이다. 허구적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우는 것은 소설의 특징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수필은 글쓴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이나 깨달음을 드러내는 글이다.

② 수필은 형식의 제약이 적어 누구나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다.

③ 수필은 글쓴이의 생각이 직접 드러나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성이나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글이다.

④ 수필의 소재에는 한계가 없다. 일상생활과 주변의 상황이 모두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다.

2. 골목 안이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고요하고 침울하다는 것은 ①~④의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

3. ⑤~⑥에는 깨옛 장수 아저씨와 관련된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세상이 살 만하며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즉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것이다.

4. '나'의 어머니는 글쓴이인 '나'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나'가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문 앞 계단에 '나'를 앉혀 놓은 것이다.

5.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방법이다. 수필은 글쓴이가 체험한 일을 통해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을 담은 글이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경험에서 느낀 감정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써야 하며, 그럴 때 독

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6. 글쓴이는 ‘괜찮아.’라는 말을 듣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위로하고 감싸며 배려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7. 글쓴이는 똥똥해서 잘 뛰지 못하는 친구에게 골키퍼 역할을 맡겨 함께 축구를 할 수 있게 배려한 어느 가수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감싸며 배려하는 삶의 소중함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8. 8에서 글쓴이가 예를 든 축구 선수들이나 골든벨에 출전한 친구는 모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글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잘못을 뉘우칠 때 상대방에게 하는 ‘괜찮아.’가 진정한 용서의 말일 것이다.
9. 9에서 ‘나’는 힘들 때마다 어릴 적 골목길에서 깨엿 장수 아저씨에게 들은 ‘괜찮아.’라는 말을 떠올렸다고 하였다.

시험엔 이렇게!!

74~77쪽

1. ⑤ 2. ③ 3. ④ 4. ④ 5. 감동, 즐거움 6. ① 7. ③

1. 깨엿 장수 아저씨가 ‘나’를 놀이에 끌 수 있게 격려해 준 것은 아니다. 깨엿 장수 아저씨는 ‘나’에게 깨엿 두 개를 주며 “괜찮아.”라고 말해 주었고, 그 일로 ‘나’는 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2. 나 때문에 다친 친구에게는 용기와 격려, 용서, 부축의 의미를 지닌 “괜찮아!”보다는 미안하다는 의미의 “괜찮아?”가 더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② 친구가 상대와의 경쟁에서 지거나 시험 성적이 나빠 우울해할 때 용기와 격려의 의미로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친구가 부모님께 혼이 나서 울고 있을 때 격려와 나눔, 부축의 의미로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친구가 내가 빌려준 장난감을 고장 내고 미안해할 때 용서의 의미로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3. 이 글에 사회를 비판하거나 꼬집은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격려하고 배려하는 말의 소중함과 관련된 여러 일화를 나열하고 있다.
- ③ 이 글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고 있는 핵심어는 ‘괜찮아’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4. 이 글은 경험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쓴 글이므로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삶을 간접 경험하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읽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과 같은 문학적인 글을 읽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② 설명문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 ③ 광고문과 같은 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 ⑤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5. 좋은 글이 가져야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그 글이 읽는 사람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6.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쓰기 위해서 독창성과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쓴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7.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어디까지나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읽는 사람이 감동을 하거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꾸며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80~81쪽

1. ⑤ 2. ④ 3. ③ 4. ③ 5.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며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6. ⑤ 7. ③ 8. ② 9. “불편한 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겠지만 용기와 힘을 내렴.”

1. 이 글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수필이다. 따라서 ⑤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놀았던 경험과 깨끗 장수 아버지에게 깨끗을 받으며 들었던 말을 회상하고 있다.
 ② 수필은 일정한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쓴 글이다.
 ③ 세상은 살 만한 곳이고, 좋은 사람들과 착한 마음과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말에서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때의 체험, 2002 월드컵 때, 「도전 골든벨」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던 것 등의 생활 속 체험을 통해 ‘괜찮아’라는 말의 따뜻한 의미를 깨닫고 있다.
2. ‘나’는 어릴 적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항상 어떤 역할을 맡았고, 친구들의 배려 덕분에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골목길’에서 지루해하며 앉아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글쓴이는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배려 있는 행동과 한마디 말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힘겨운 나에게 따스한 말을 건네는 행동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4. 친구들은 골목의 구석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려고 일부러 ‘나’의 집 앞에서 논 것이다.
5. (라)에서 글쓴이는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며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다.
6. 수필의 소재는 자유로우므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깨끗 장수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고 글쓴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지, 이를 통해 독립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 ①, ②, ④ 글쓴이는 깨끗 장수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로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⑤ 방송 프로그램 속 어느 가수의 친구는 그 가수의 배

려로 친구들과 축구를 하였던 몇십 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며 그때 큰 위로를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8.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복돋워 주는 것이므로 첫 번째 칸에는 ‘용기’가,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엔 ‘용서’가, 외로운 사람에게 나는 네 편이니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에 세 번째 칸에는 ‘격려’가 적절하다. 그리고 슬퍼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네 번째 칸에는 ‘나눔’, 일으켜 준다는 말이 있는 마지막 칸에는 ‘부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9. <조건>을 고려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는 말로 바꾸어 서술하도록 한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86~90쪽

1. ② 2. ⑤ 3.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4. ② 5. 「서시」와 <보기> 시조의 ‘바람’은 외부로부터의 시련이라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6. ③ 7. ⑤ 8. ⑤ 9. 문기가 고깃간 주인에게 너무 많은 거스름돈을 받았다. 10. ③ 11. ① 12. ① 13.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문기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의 말을 할 것이다. / 문기에게 다시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낼 것이다. / 문기와 함께 고깃간 주인을 찾아가 돈을 물어 줄 것이다. 14. ③ 15. ② 16. ④ 17. 그만하면 참 잘했어. 18. ② 19. ⑤ 20. ③

1. 이 시에서 ‘하늘’과 ‘별’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말하는 이가 지향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람’과 ‘밤’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하는 이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 시는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나’로 시에 직접 드러나 있다.
 ③ 이 시는 ‘과거-미래-현재’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④ 이 시에 ‘모양이나 동작을 흉내 내는 말’인 의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이 시는 솔직하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듯한 어조를 띠고 있을 뿐 예찬하는 어조가 쓰이지 않았으며,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도 않다.

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부끄럼이 없는 삶을 소망하였지만, 앞세에 이는 바람처럼 작은 것에도 괴로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말하는 이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이는 순수한 이상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의미이다.
 ②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곳곳하게 주어진 길을 가고자 다짐하는 말하는 이의 모습에서 미래의 삶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③, ④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3. 2연의 '밤'은 춥고 어두운 시간으로 일제 강점기를 나타내며, '바람'은 외적인 고난이나 시련을 의미한다. 이로 볼 때 말하는 이는 2연에서 힘들고 암담한 현실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4. '별'은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한다. 말하는 이는 미래의 희망과 이상에 대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5. <보기>의 시조에서 '바람'은 '낙락장송'과 '못 다 핀 꽃'에게는 큰 시련이라 할 수 있다. <자료>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낙락장송'은 수양 대군이 죽인 중신들을 의미하며, 이때 중신들에게 '바람'은 정치와 같은 외부에서 온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서시」에서도 ㉠ '바람'은 어두운 현실(식민지 상황)에서 오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6. 이 글의 갈래는 소설이다. ③은 시의 특성에 해당한다.
7. 문기는 공을 강물에 버리고 쓰고 남은 거스름돈을 고깃간 집 마당에 던진 뒤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문기는 고깃간에서 낸 돈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거스름돈을 받고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② 문기는 거스름돈을 같이 쓰자는 수만의 말에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 고마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수만은 나중에 무슨 일이 나도 문기가 만든 돈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삼촌은 공과 쌍안경에 대해 문기에게 묻고 문기의 대답을 믿어 주고 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문기는 삼촌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8. 자신을 믿는 삼촌에게 거짓말을 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 오른 것이다.
9. (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소재는 문기가 고깃간 주인에게 더 받은 거스름돈이다.
10. 지적이고 주관이 뚜렷해 보이는 배우는 순진하고 소심한 문기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
11. (나)에 주로 나타나 있는 갈등 양상은 더 이상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문기와 돈을 내놓으라는 수만 사이의 외적 갈등이다. ①에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지식 창고 - 갈등의 양상

- 내적 갈등: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 발생하는 갈등
- 외적 갈등: 한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싼 외부 요인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 발생하는 갈등

12. 문기의 두 번째 허물은 쓰고 남은 돈을 내놓으라는 수만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숙모의 돈을 훔친 것을 말한다. 고깃간에서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수만과 함께 몰래 쓴 것은 문기의 첫 번째 허물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② ㉠은 수만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벌인 행동이다.
 ③, ⑤ 숙모의 돈을 훔친 일로 문기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해 결국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문기가 숙모의 돈을 훔친 일로 점순이 누명을 쓰게 된다.
13. 이 작품의 전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삼촌은 문기에 대한 애정을 지닌 사람이다. 이러한 삼촌의 성격에 맞게 (마) 이후의 내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14. 여러 일화를 인용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격려의 말이 매우 소중하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유명인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격려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글로, 따뜻하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② 어린 시절 깨끗 장수 아저씨가 깨끗을 주며 ‘괜찮아’라고 말했던 체험을 바탕으로 말 한 마디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 ④ “괜찮아”라는 말에는 용기, 용서, 격려, 나눔, 부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다.
- ⑤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따뜻한 말 한 마디가 글쓴이의 삶에 희망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기억을 회상한다고 할 수 있다.
15. 깨끗 장수 아저씨가 ‘나’에게 깨끗을 주며 ‘괜찮아.’라고 한 말을 들은 어릴 적 경험은 ‘나’에게 세상은 살 만하며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는 곳이란 깨달음을 주었고, 이로 인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16. 이 글의 글쓴이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소재로 글을 쓰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쓴다고 반드시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17. 골든벨을 울리지 못한 친구에게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이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 창고 - 구어체

글에서 쓰는 말투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

18.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가 경험하고 성찰한 내용을 파악한 뒤 이를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감상한 것을 찾는 문항이다. (가)의 ‘나’가 지난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상자 입장에서 자신의 삶이 어떤지 생각해 보는 ②가 이에 해당한다.
19. 문기는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이를 반성하고 후회하기 때문에 (라)의 ‘나’는 이에 대한 위로의 말이나 충고의 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4 정답과 해설

20. 수만은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것이 확실한지 속도를 통해 확인해 본 뒤 그 돈을 쓸 생각을 하고 있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91~93쪽

(1) 서시

1.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양심을 지키며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한다. 2. 1~4행의 고백적 어조에서 5~8행의 의지적 어조로 변화하고 있다. 3. 시인은 시에서 일제 강점기 지식인으로서 현실의 시련과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곳곳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 ‘바람’은 부정적 이미지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며, ‘별’은 긍정적 이미지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상을 상징하고 있다.

(2) 하늘은 맑건만

1.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있으나 점차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2. 긴장감을 유발하고 사건에 흥미를 더한다. 3.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네 상황을 해결할 최선의 방법이야. / 정직하게 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용기 있게 네 잘못을 고백하렴.

(3) 괜찮아

1.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며 지냈을 것이다. 2.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였다. 3. 글쓴이는 힘들고 어려울 때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인 ‘괜찮아’라는 표현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가치 있는 삶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1) 서시

1. 시인이 이 시를 창작했던 시기는 일제 강점기로, 당시의 현실은 일제의 핍박으로 매우 어렵고 암울했다. 그러나 시인은 현실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양심을 지키며 살고자 한다.

평가 요소	확인(✓)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1~4행의 내용을 드러내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드러내었다.	
3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1~4행에서 지난날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백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앞으로 살아갈 순수한 삶에 대한 결의를 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지난날을 성찰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파악하였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 결의를 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파악하였다.	
어조의 변화를 논리적인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보기>를 보면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시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이 시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서술해 본다.

평가 요소	확인(✓)
<보기>의 (가)에 드러난 시인의 신념을 파악하였다.	
<보기>의 (나)에서 시인이 처한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다.	
<보기>에서 파악한 내용과 관련하여 서술하였다.	

4. ‘별’은 긍정적 이미지로 말하는 이가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대상이며, ‘바람’은 부정적 이미지로 말하는 이를 힘들게 하는 시련이다.

평가 요소	확인(✓)
‘별’의 상징적 이미지를 이해하고 서술하였다.	
‘바람’의 상징적 이미지를 이해하고 서술하였다.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대비해 서술하였다.	

(2) 하늘은 맑건만

1. 으스스한 골목을 걸을 때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리었으나, 밝은 큰 한길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으로 변했다고 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였다.	
‘기쁨’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였다.	
앞뒤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였다.	

2. (나)에서는 문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나머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짐으로써 갈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곧이어 수만과의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문기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 이처럼 작가는 문기의 갈등을 심화함으로써 소설 전개 과정에 긴장감을 유발하고 사건에 흥미를 더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갈등의 심화가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긴장감’, ‘흥미’와 같은 내용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20자 내외로 서술하였다.	

3. 이 소설의 주제는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이다. 즉 작가는 문기의 고민과 갈등을 통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 준다. 이러한 내용과 연관 지어 문기에게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요소	확인(✓)
‘정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였다.	
친구에게 직접 말하는 형태로 서술하였다.	
30자 내외로 서술하였다.	

(3) 괜찮아

1. (가)에서 ‘나’는 골목 안 친구들이 몸이 불편한 자신을 배려해 준 덕분에 놀이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골목 안 친구들이 ‘나’를 배려한 내용을 알고 있다.	
‘소외감’이나 ‘박탈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3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나’를 늘 배려해 준 골목 안 친구들과 ‘괜찮아.’라고 말해 준 깨엿 장수는 모두 ‘나’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평가 요소	확인(✓)
㉠, ㉡과 관련된 일화 내용을 이해하였다.	
㉠, ㉡이 ‘나’의 인생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밝혔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넣어 서술하였다.	

3. 글쓴이는 서로 돕고 배려하는 삶의 가치를 ‘괜찮아.’라는 표현과 관련된 일화들을 통해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나’가 글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격려의 소중함’을 드러내었다.	
‘괜찮아’와 관련지어 서술하였다.	

2 세상을 담은 말, 마음을 담은 말

(1) 우리말의 어휘

꼭꼭 확인 문제

106~118쪽

1. ⑤ 2.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의 일부로 쓰이는 외래어이다. 3. ④ 4. ④ 5. ⑤ 6. ③ 7. ② 8. 외래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우리말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 문화에 관한 자긍심을 손상하며 고유어가 사라지면서 고유어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서도 사라질 수 있다. 9. ③ 10. ⑤ 11. ⑤ 12. 부추 13. 문화적 유대감과 친근감 14. ⑤ 15. ⑤ 16. 전문 분야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비교적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② 18. ④ 19. 은어는 집단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20. ③

1. 운동화는 한자로 '運動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한자어이다.

오답 해설

①, ④의 나무와 어머니는 고유어이고, ②의 공원(公園)은 한자어이고, ③의 주스(juice)는 외래어이다.

2. 어중에 따라 국어 어휘를 나누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라켓(racket), 벤치(bench), 샌드위치(sandwich)는 모두 외래어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다.

3. 고유어는 일상 어휘들로 주로 쓰이며 기초적인 어휘가 많다.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한자어의 특징에 해당한다.

4. 눈꺼풀은 신체를 나타내는 고유어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상 어휘가 많다는 고유어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이다.

5.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의미를 세분화하여 나타낼 수 있으므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뜻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오답 해설

① 비유와 상징은 문학적 표현 기법으로 어중에 따른 어휘의 체계와는 관련이 없다. 즉, 고유어나 한자어, 외래어 모두 비유적 표현이나 상징적 표현에 쓰일 수 있다.

②, ③ 고유어의 특성에 해당한다.

④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지니는 것은 고유어의 특징이다.

6. 이해(理解)란 말이나 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거나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말이라는 고유어와 바꾸어 쓰기 어렵다.

7. 오픈(open)은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로 '열다, 열린' 등의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8. 고유어 대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인 외래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고유어가 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서도 사라질 수 있다.

9. '잔반(殘飯)'은 '먹고 남은 밥'이나 '먹고 남은 음식'을 뜻하기 때문에 '남은 밥'이나 '음식 찌꺼기'로 다듬을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도우미'는 '행사 안내를 하거나 행사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봉사 활동을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힌트'는 '도우미'로 다듬는 것이 적절하다.

② '소감(所感)'은 '마음에 느낀 바'를 뜻하므로 '느낀 바'로 다듬는 것이 적절하다.

④ '사이버 시민'에서 '사이버'도 외래어이므로, '누리꾼'이라는 고유어로 다듬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⑤ '에어캡'은 완충 포장을 하거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포가 들어간 폴리에틸렌 필름을 이르는 말이므로, '공기 채우기'는 '에어캡'의 뜻을 살리지 못한 말이다. '에어캡'은 누르면 뽁뽁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뽁뽁이'로 다듬어져 쓰이고 있다.

10. 우리말 다듬기 활동을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말은 외국어(①)나 외래어(④),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②), 우리말 규범에 맞지 않는 말(③) 등이다. 이런 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말 규범에 맞는 고유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고유어를 외국어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나)는 손자가 할머니를 만나 인사를 나누는 상황으로,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반가움과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푸초'는 평안도, '염지'는 함경도, '분추'는 강원도, '졸'

은 충청도, '정구지'는 경상도, '술'은 전라도, '세우리'는 제주도 지역의 방언으로 모두 '부추'를 뜻한다.

13. 지역 방언은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말로 그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문화적 유대감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14. 서로 다른 지역 사람들끼리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역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의 기능에 해당한다.

15. (나)는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으로 공식적인 상황에 해당하며,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준어를 쓰고 있다.

16. 전문어는 전문 분야에서 전문 직업인들끼리 사용하는 전문적인 말로, 그 분야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일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17. 손자는 '피방, 열공, 쫄다'와 같은 준말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제시된 대화만으로 손자가 외래어나 한자어를 고유어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어휘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할아버지는 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⑤ '자당', '별고'는 한자어로 외래어나 전문적 어휘라고 볼 수 없다.

18. '야리, 후리'는 도매상인들의 은어에 해당한다. 은어는 특정 집단에서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쓰는 암호 같은 말이다.

19. 은어는 집단의 비밀 유지를 위해 만든 말이기 때문에 은어 사용의 목적은 집단의 비밀 유지에 있다.

20. 은어는 특정 집단에서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 방언의 특징이다.

② 은어는 집단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만든 말이므로 어려운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④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전문어의 장점이다.

⑤ 은어는 특정 집단에서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은어를 사용하는 집단과 그 이외의 집단 사이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은어 사용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22~125쪽

1. ② 2. ② 3. ① 4. ③ 5. ③ 6. ③ 7.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뜻을 나타낸다. 8. ① 9. ④ 10. ① 11. ④ 12. ④ 13. • 다듬은 말 : 손님, • 그렇게 다듬은 까닭: '손님'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을 뜻하므로 '게스트'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고유어이기 때문이다. 14. ② 15. ② 16. ② 17. ⑤ 18. 환자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전문적인 말을 사용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9. ⑤ 20. 영희 어머니께서는 잘 지내고 계시나? / 영희 어머니께서는 별일 없으시나? 21. ⑤ 22. ② 23. ③

1. 고유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본디부터 있었던 순우리말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① 국어의 어휘를 어종에 따라 분류하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뉜다. 외국어는 우리말이 아니다.

③, ⑤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로 우리말에 해당하지만,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말로 우리말이 아니다.

④ 한자어는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어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

2. '구름, 아버지'는 본디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순우리말인 고유어이고, '수건(手巾), 공원(公園)'은 한자로 이루어진 말인 한자어이고, '벤치(bench), 주스(juice)'는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인 외래어이다.

3. 제시된 단어들은 계절을 나타내는 고유어로 우리나라에서 본디부터 있었던 순우리말이다. 따라서 한자로 표기할 수 없다.

4. '운동화(運動靴)'는 '운동할 때 신는 신' 또는 '평상시에 활동하기 편하게 신는 신'을 뜻하는 말로 한자어이다.
5. '씨름, 길쌈, 달맞이, 강강술래, 부럼' 등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보여 주는 말로 고유어이다. '길쌈'은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부럼'은 '음력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깨물어 먹는 딱딱한 열매류인 땅콩, 호두, 잣, 밤, 은행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고유어는 본디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전통과 역사, 삶과 문화를 보여 준다.
6. '나무, 수풀, 딸, 진달래꽃'은 모두 고유어이고, '안경(眼鏡)'은 한자어이다.
7. '말'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대화(對話), 해명(解明), 표현(表現), 설명(說明), 소문(所聞), 단어(單語)' 등의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에서 고유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다 보니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한자어는 의미가 세분화되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뜻을 나타낼 수 있다.

지식 창고 -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

한자어는 대체로 고유어에 비해 의미가 정교하여 하나의 고유어에 비슷한 뜻을 가진 여러 개의 한자어가 대응한다. 예를 들어, '생각'이라는 하나의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로는 '사고(思考), 사색(思索), 사유(思惟), 명상(冥想), 고려(考慮), 고찰(考察), 고안(考案), 궁리(窮理), 연구(研究), 회상(回想), 각오(覺悟), 결심(決心), 사상(思想), 견해(見解), 추측(推測), 상상(想像), 기억(記憶)' 등 다양한 단어가 있다.

8. '너와 말하다'에서 '말하다'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는 '대화(對話)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말해 봐.'에서 '말하다'는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다'라는 '설명(說明)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9.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초 어휘는 고유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오답 해설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①)로 우리말의 일부(③)이다. 외래어는 본디 우리에게 없던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어온 말(⑤)이기 때문

에 고유어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②).

10. '상품(商品)'은 '사고파는 물품'을 뜻하는 말로 한자어이다. '컬러(color), 디자인(design), 크리스털(crystal), 포인트(point)'는 모두 외래어이다.
11. 하나의 단어에 여러 뜻이 포함되는 다의어적 성격을 지니는 어휘는 고유어이다. 외래어는 대개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들어온 말로 다의어적 성격을 지닌 경우는 많지 않다.
12. 우리말을 다듬을 때에는 외래어나 외국어,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고유어가 없을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로 바꾼다. '소감(所感)'은 한자어로 '마음에 느낀 바'를 뜻하기까 '느낀 바'라는 고유어로 다듬는 것이 적절하다. '필(feel)'은 외국어이므로 소감을 적절하게 다듬은 말로 보기 어렵다.
13. '게스트(guest)'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초대한 사람'을 뜻하므로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한 고유어인 '손님'이나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인 '특별 출연자'로 다듬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고유어로 다듬으라고 했기 때문에 '손님'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4. '라이벌(rival)'은 '같은 목적을 가졌거나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맞수'를 뜻하는 외래어이므로, '맞수'라는 고유어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③ '냉면(冷麪)'은 '차게 해서 먹는 국수'를 뜻하는 말로 한자어이고, '놀이공원'은 '놀이'라는 고유어와 '공원(公園)'이라는 한자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둘 다 한자어가 들어 있긴 하지만 이해하기가 쉽고 일상에서 널리 쓰이기 때문에 꼭 다듬어야 할 말로 보기는 어렵다.

④, ⑤ '늑새바람'과 '눈두덩이'는 둘 다 고유어이기 때문에 다듬을 필요가 없다.

15. 지역 방언은 하나의 언어가 지리적 요인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말이고, 사회 방언은 하나의 언어가 나이, 성별, 직업, 계층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말이다. 따라서 둘은 서로 별개의 성격을 지니므로, 지역 방언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회 방언

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16. 남자는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와 (나)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에서는 표준어를, (나)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인물이라도 상황과 목적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남자는 (가)에서는 표준어를, (나)에서는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로 평소에 둘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 ③ (나)는 손자와 할머니가 만나 인사를 나누는 비공식적인 상황이다. 남자는 이 상황에서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 ④ (가)는 텔레비전 방송 화면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다. 남자는 이 상황에서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나)의 사적 상황에서 할머니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노인 세대가 어떤 상황에서는 지역 방언을 주로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7. [A]는 시골의 어느 밭에서 자란 수박끼리 나누는 대화를 상상하고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이를 실감 나게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나 풍습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A]에서 작가는 표준어 대신 지역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시골 특유의 향토적이며 토속적인 시의 분위기를 잘 살려 내고 있다(①). 또한 수박을 팔러 나가는 농부의 마음을 '내 별건 속 알아 주는 사람'에게 '제값에 팔리'고 싶다는 수박의 말로 현장감 있게 그려 내고 있으며(④), 수박 형제의 이야기가 마치 시골 어딘가에 실제로 살고 있는 형제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②). 그리고 지역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시골의 어느 밭에서 나고 자란 수박의 이미지를 구체적이고 실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③).

18. <보기>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과 ㉡은 의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어임을 알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전문어를 사용하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전달할 수 있다.

지식 창고 - 전문어의 특성

- 첫째, 의미가 매우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다.
둘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문맥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셋째, 감정적인 의미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다.
넷째, 일반 사회의 기본 어휘로 사용되는 경향이 적다.
다섯째, 새로운 말이 활발하게 만들어진다.
여섯째, 외래어로부터 차용된 어휘가 많다.

19.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자당', '별고' 같은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여 손자가 그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손자는 청소년들이 흔히 쓰는 준말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말의 뜻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에 따른 어휘 사용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할아버지는 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자가 어려워하는 단어의 뜻을 쉬운 말로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영희 자당'은 '영희 어머니'로, '별고 없냐?'는 '별일 없냐?' 혹은 '잘 지내시냐?' 정도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1. 은어는 특정 집단이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만든 말이고, 전문어는 전문 직업인들이 쓰는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말이다. 따라서 은어와 전문어는 모두 특정 집단에서 사용하는 말로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오답 해설
- 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되는 말은 유행어이다. 은어는 기간과 상관없이 그 말이 외부에 알려지면 은어로서의 기능을 잃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전문어는 전문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②, ④ 한자어나 외래어로 된 말이 많은 것은 전문어의 특성이며, 일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만든 말도 전문어이다.
- ③ 집단의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만든 말은 은어이다.
22. 대화에 쓰인 '야리'와 '후리'는 각각 '만 원'과 '이만 원'을 뜻하는 말로, 도매상인들이 사용하는 은어이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표현하는 어려운 말은 전문어

에 해당한다.

23. ㉠은 단맛을 표현하는 고유어 중 긍정의 뜻을 지닌 말로,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말이어야 한다. 양성 모음은 어감이 밝고 산뜻한 모음으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따위를 말한다. 따라서 ‘달콤하다,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가 ㉠에 들어가야 한다. ㉡은 단맛을 표현하는 고유어 중 부정의 뜻을 지닌 말로, 음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말이어야 한다. 음성 모음은 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으로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따위를 말한다. 따라서 ㉡에는 ‘들끓하다, 들쩍지근하다’와 같은 말이 들어가야 한다.

(2) 배려하는 말하기

꼭꼭 확인 문제

129~134쪽

1. ㉡ 2. ㉡ 3. 자존감이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 인간관계 형성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 4. ㉡ 5. ㉠

1. ‘10여절마다 한 번씩 비속어, 은어 등 사용’이라는 말에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속어와 욕설, 은어 등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ㅂㅅ’이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을 보고 학생 대부분이 해당 자음을 초성으로 사용한 비속어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혜의 대사는 피아노 연주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친구들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던진 말로, 농담 삼아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언어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며, 인간관계 형성에도 두려움을 갖게 된다.
4.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란 상대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할 때도 있고 같이 분노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활짝 웃으며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식 창고 - 공감적 대화하기에 필요한 항목

① 관심갖기와 경청하기

- 시선 접촉: 자연스럽게 눈을 맞춤.
- 얼굴 표정: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지음.
- 몸짓: 고개를 끄덕임.
- 자세: 상대를 향해 앉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함.
- 말: “그래?”, “정말?”, “으음” 등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맞장구를 칠.

② 공감하기

상대에게 문제의 해결책이나 조언을 선불리 제시하지 않고,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며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함.

5. 예림은 노래를 불러 달라는 친구들의 요청을 받고 다소 겁먹은 표정으로 머뭇거리고 있다. 영지는 이런 예림의 태도를 비웃고 놀리고 있는데, 예림의 감정을 헤아린다면 친근하고 다정한 말투로 노래 부를 것을 권유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노래 부르기를 망설이고 있는 예림에게 노래 실력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 ③, ④ 노래를 빨리 부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예림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부드럽고 다정하게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짜증을 내거나 힘든 표정을 지으며 빨리 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상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반응이다.
- ⑤ 노래를 부르지 못해 머뭇거리고 있는 예림을 놀리거나 노래 실력을 확인해 보겠다는 식의 발언은 상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기를 죽이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38~139쪽

1. ㉠ 2. ㉢ 3. ㉣ 4. ㉣ 5. ㉡ 6. ㉢: 민진, 영지, 지연, ㉤: 미혜, 흥찬 7. ㉡ 8.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폭력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 말할 때에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춰야 해. 9. (가까이 다가서며/다정한 말투로/온화한 표정으로) 그래? 얼마 안 됐으면 보여 주긴 민망할 수도 있겠다.

1. (나)~(라)에서 ‘ㅂㅅ’이 적힌 팻말을 보고 학생 대부분이 떠올린 말은 비속어인 ‘병×’임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해 학생들은 ‘ㅂㅅ’을 초성으로 하는 두 음절의 단어는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속어를 떠올렸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는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영상 자료에서 다루는 문제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언어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2. (나)~(라)의 내용에서 청소년들이 ‘병×’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비속어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현상이 문제임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바로 이런 현상을 보여 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학교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 ② 청소년의 어휘력이 아닌 비속어 사용을 문제 삼고 있다.
 - ④ 청소년들이 분노와 짜증을 폭력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는 까닭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가)~(라)에 이런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과 스마트폰 중독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처지와 상황, 기분이나 감정 등을 헤아리고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4. 지연은 ‘주둥이’라는 천박한 느낌을 주는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깔보며 얹잡아보고 있다. 이런 비속어나 욕설의 사용은 언어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지혜가 지나친 사교육으로 힘든 방학을 보낸 것을 지혜의 약점이나 실수로 보기 어렵다.
- ② 지연은 지혜에게 집을 주거나 해를 가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 ③ 지연은 지혜를 질시하고 있을 뿐, 지혜를 차별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⑤ 지혜가 지연보다 더 약한지 강한지는 알 수 없다.

- 5. 지연은 지혜가 다양한 교육을 받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 부러워할 만한 상황을 비꼬듯이 이야기하면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에는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지시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6. 이 글에는 예림의 노래 실력을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놀리는 친구들과, 예림의 편에 서서 예림을 감싸고 이해하는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잘 나타나 있다. 민진은 예림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고, 영지는 예림을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고, 지연은 민진과 영지와 함께 예림을 비웃으며 깔깔거린다. 반면 미혜는 예림을 놀리는 친구들에게 항의도 하고, 교실을 뛰쳐나가는 예림을 뒤쫓아 간다. 홍찬 역시 예림을 놀리는 친구들에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나무란다.
- 7. 은어는 특정 집단이 비밀 유지를 위해 만든 말이다. 이 글에는 예림이 친구들의 은어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민진은 예림이 싫어하는 별명인 ‘나가수’라는 말을 함으로써 예림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 ②, ③, ④ 영지는 예림에게 ‘노래는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넌 노래를 말로 하나?’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리고, ‘병어리’라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아냥거리는 등 예림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
- 8. 영지는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인 예림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 예림의 노래 실력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로 예림에게 상처를 입혀 결국 예림이 교실을 뛰어나가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폭력이 예림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생각하게 하여 영지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림의 처지와 감정을 헤아려 말하도록 영지에게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 9. 노래를 불러 달라는 친구들의 요청에 예림은 ‘배운 지 얼마 안 됐어…….’라고 말하며 망설인다. 따라서 배운 지 얼마 안 돼 아직 자신이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 예림의 심정에 공감해 주는 말을 하고, 예림이 자신감을 갖도록 다정하고 온화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② 2. ③ 3. ③ 4. ④ 5. ② 6.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없던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기 때문이다. 7. ④ 8. ① 9. ⑤ 10. 왜냐하면 손자는 할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준말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고, 할아버지는 손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① 12. ③ 13. ⑤ 14. 말하기 전에 5초 정도 생각해 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한다. / 평소에 사용하는 은어나 비속어를 순화어로 바꾼다. / 아름다운 순우리말을 찾아내어 순우리말 사전을 만들어 본다. 15. ⑤ 16. 예림 17. 그러게, 정말 힘들었겠다. 18. ④

- 어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통성이 있는 것끼리 묶은 단어들의 집합이므로, 어휘를 분류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준희). 한자어는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가 가능하며, 중국에서 들어온 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도 있다(지우).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로 우리말에 해당한다(민영).

오답 해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모두 우리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므로 어휘 사용 집단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어종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따라서 인형의 말은 적절하지 않다.) 고유어와 한자어는 별개의 어휘이다. 한자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으며, 이것은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에 속한다.(따라서 형준의 말은 적절하지 않다.)

지식 창고 -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의 상호 보완성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는 모두 우리말의 일부이다. 각각의 어휘들은 고유한 특성을 보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한다.

- 달걀이 주방 어디에 있다고? - 계란이 부엌 어디에 있다고?: 고유어와 한자어의 뜻이 완벽하게 일대일로 대응하는 경우
- 키친타월이 어디 있지? - 주방 수건이 어디 있지: 원래 있던 사물이나 개념이 아니므로 고유어 혹은 한자어로 변경하면 뜻이 달라지는 경우
- 노래가 참 사색적이더라. - 노래가 참 생각의 느낌이더라.

라.: 한자어의 분화된 뜻이 있기에 고유어로 변경하면 어색한 경우

- ㄱ에 제시된 단어들은 신체를 나타내는 고유어이고, ㄴ에 제시된 단어들은 계절을 나타내는 고유어로,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들이다.

오답 해설

-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일상 어휘들이다.
-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고유어이다.
- ㄱ은 신체와, ㄴ은 계절과 관련이 있는 기초 어휘이다.
-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본디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말로 특정 집단에서 만든 말이 아니다.
- '강강술래'는 정월 대보름날이나 팔월 한가위에 남부 지방에서 행하는 민속놀이로,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우리 고유의 풍속이다. 따라서 강강술래는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고유어라고 할 수 있다.
- 제시된 예를 통해 '말'과 '생각'이라는 하나의 고유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으며, 그 여러 가지 세분화된 뜻은 한자어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제시된 예를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 한자어에 해당하는 말들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 '말'과 '생각'은 모두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다.
- 제시된 단어들은 우리나라의 풍속이나 전통과 역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 '판결(判決)'은 한자어이며, '누리꾼'은 외래어 '네트즌'을 다듬은 말로 고유어이다.

오답 해설

- 의 '힌트(hint)', ③의 '프라이드치킨(fried chicken)', ④의 '서비스 센터(service center)', ⑤의 '컬러(color)'와 '디자인(design)'이 외래어이다.

지식 창고

고유어 같은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왔으나 그 어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완전히 국어 어휘화하여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에는 '찰나, 탑, 보살, 석가, 빵, 냄비, 우동, 고무, 카스텔라' 등이 있음.
------------	---

6. '컴퓨터, 초콜릿, 피아노'는 모두 외래어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들어온 말이다. 본래 우리에게 없던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고유어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7. 다듬은 말을 선정할 때에는 우리말 규범에 맞는 말이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유어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8. 방언의 종류는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나뉜다. ②, ③은 세대, ④는 직업군, ⑤는 특정 집단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말을 보여 주는 예로 사회 방언에 해당하고, ①은 지역 방언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지식 창고 – 또 다른 사회 방언: 금기어와 완곡어

금기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고 불쾌한 연상을 동반하거나 속되고 점잖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며, 완곡어는 금기어를 불쾌감이 덜하도록 대체한 단어들이다. 속어가 장난스러움, 점잖지 못함 같은 느낌을 주는 데 비해, 금기어는 사회적으로 두려움, 지저분함 같은 불쾌감을 준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예	금기어	완곡어
	천연두	마마, 손님
	변소	뒷간, 화장실, 해우소
	죽다	작고하다, 운명하다

9. (가)에서 표준어를 쓰던 남자가 (나)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까닭은 할머니를 만나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표준어이고, (나)는 지역 방언이다.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말은 사회 방언이다.
- ②, ③ (가)에서 남자는 특정 지역의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뉴스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나)에 고유어가 쓰인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풍속을 보여 주는 말은 쓰이지 않았다.
10. 손자는 할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피방, 열공, 쫄다'와 같은 준말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고, 할아버지는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당, 별고'와 같은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1. (가)는 의료 분야의 전문 직업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고, (나)는 의사가 환자에게 병에 대해 설명해 주는 상황으로 모두 공식적인 상황이다.

12. 전문 직업인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어휘는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전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효율적인 일 처리를 하기 위해 만든 말이므로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만든 말인 은어와는 구분된다.

13. 이 영상 자료에서 학생들은 'ㅂㅅ'을 보면서 제일 먼저 비속어를 떠올린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언어생활에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시도하고 있다.

14. 이 영상 자료에서 학생들은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위해 세 가지 시도를 한다. 첫째, '5초 참기'는 말하기 전에 5초 정도 생각해 보고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를 구사하려는 노력이고, 둘째, '순화어 만들기'는 평소에 사용하는 은어나 비속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어 보려는 노력이고, 셋째, '순우리말 사전 제작하기'는 아름다운 순우리말을 직접 정리하여 사전을 만들어 보는 노력이다.

15. 미혜는 예림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친구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예림을 무시하고 놀리는 친구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지혜는 방학 중에 각종 사교육에 시달리느라 자신이 얼마나 힘든 방학을 보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친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
- ② 지연은 지혜에게 '주둥이'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다.
- ③ 민진은 예림이 싫어하는 별명인 '나가수'라는 별명을 부르면서 예림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
- ④ 영지는 예림에게 노래 부를 것을 강요하면서 예림의 노래 실력을 비웃고 무시하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16. 민진과 영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혜와 지연 등 학급 친구들은 가수가 꿈인 예림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예림을 비웃고 놀리고 있다. 친구들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예림은 결국 교실을 뛰쳐나간다. 따라서 언어폭력의 피해자는 예림이다.

17. 지연은 방학 중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지혜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지혜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고, 대신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지연을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려면, 지혜의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말을 하며 위로하는 것이 적절하다.
18. 영지는 예림의 노래 실력을 무시하면서 예림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큰 목소리로 சொ붙이듯이 연기는 것이 적절하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146~147쪽

(1) 우리말의 어휘

1. ㉠: 고유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본디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순우리말 단어, ㉡: 한자어,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단어, ㉢: 외래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의 일부로 쓰이는 단어 2.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지니는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는 의미가 세분화되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뜻을 나타낸다. 3. ㉠: 산이나 강 등으로 구분된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말, ㉡: 나이, 성별, 직업, 계층 등의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말 4. 시골의 밭에서 나고 자란 수박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향토적이며 토속적인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5. 독립운동과 관련한 작전을 비밀리에 진행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은어를 사용하였다.

(2) 배려하는 말하기

1. 준말과 비속어, 은어를 자주 사용한다. 2. 민진, 상대방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른다. / 영지,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고 비아냥거리며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한다. 3. 언어폭력의 확산으로 학급의 언어생활이 혼탁해진다. /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해진다. /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긍정적인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4. ㉠ 근데 예림아, 너 요즘 노래 배운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니?, ㉡ 와, 대단하다! 난 아직 무엇이 될지 정하지 못했는데, 너 벌써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1) 우리말의 어휘

1. ㉠에 쓰인 단어는 모두 본디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유어이고, ㉡의 수건(手巾), 운동화(運動靴), 공원(公園), 안경(眼鏡), 냉면(冷麵)은 한자로 표기가 가능한 한자어이다. ㉢의 라켓(racket), 벤치(bench), 주스(juice), 컴퓨터(computer), 디자인(design)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인 외래어이다.

평가 요소	확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2. ‘말’이라는 하나의 고유어가 ‘대화, 설명, 해명, 표현’과 같은 다양한 한자어로 대체되는 것을 통해,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의미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한자어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의미를 지녔음을 파악하였다.	
고유어가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지녔음을 파악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3. 지역 방언은 지역적 요인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 말로,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제주도 방언 등 지역별로 방언이 존재한다. 사회 방언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 말로,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직업에 따라, 계층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진 것이다.

평가 요소	확인(✓)
지역 방언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사회 방언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지식 창고 - 사회 방언의 요인과 유형

사회 방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세대, 성별, 직업, 계층, 계급 등. 단, 오늘날 계급 방언은 사라지고 대신 계층 방언이 등장했으나 현대 사회에서 계층 방언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음.
사회 방언의 유형	노인어, 청소년어, 유아어, 남성어, 여성어, 계층어, 직업어 등

4. <보기>에 쓰인 표준어로 나누는 대화에서는 특정 지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시골에서 나고 자란 수박의 이미지를 살리지 못한다. 하지만 이 표준어를 지역 방언으로 바꿈으로써 대화를 나누는 수박이 실제로 어느 시골 밭에서 나고 자란 것 같은 구체적인 이미지로 드러나게 되며 작품에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평가 요소	확인(✓)
지역 방언이 수박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지역 방언이 향토적이며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5. 밑줄 친 말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한 은어이다.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과 관련한 작전을 비밀리에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말인 은어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평가 요소	확인(✓)
어휘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은어 사용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2) 배려하는 말하기

1. (가)에서 손자는 ‘피방, 열공, 찢다’ 같은 준말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고, (나)의 영상 자료에서는 비속어와 은어 사용이 일상화된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가)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나)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생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지식 참고 – 청소년이 사용하는 부적절한 어휘의 예

준말	비속어	은어
베플	쪽팔리다	짱
무도	골 때리다	담탱이
먹방	생까다	덕후
닥본사	토끼다	중딩

2. 민진은 예림을 ‘나가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가수’는 예림이 싫어하는 별명이다. 영지는 ‘병어리’라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고, ‘노래는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넌 노래를 말로 하나?’라는 말로 상대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민진의 언어폭력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영지의 언어폭력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3.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언어폭력이 일상화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언어생활 자체가 혼탁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해지며 공동체의 긍정적 발전이 어려워진다.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도 어려워진다.

평가 요소	확인(✓)
부정적 영향을 세 가지를 이상 파악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4. 민진은 예림이 싫어하는 별명인 ‘나가수’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것이 예림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예림의 감정을 고려하여 예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영지는 가수가 꿈이라는 예림의 말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다. 따라서 예림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예림의 꿈을 존중해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요소	확인(✓)
민진의 말에 쓰인 언어폭력을 바르게 고쳐 서술하였다.	
영지의 말에 쓰인 언어폭력을 바르게 고쳐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4 간추리고, 따져 보고

(1) 열두 살에 나라를 세우다

꼭꼭 확인 문제

175~179쪽

1. ③ 2. ③ 3. ② 4. ④ 5. 유화는 부모의 허락 없이 해모수를 따라가 사랑을 나눈 죄로 우발수로 귀양을 왔다. 6. ① 7. ⑤ 8. ④ 9. ④ 10. 금와왕은 알을 없애려고 하였다. 11. ③ 12. 좋은 말을 자신이 차지하여 동부여에서 도망갈 때 사용하기 위함이다. 13. ③ 14. ③

1. 주몽 신화는 동부여, 우발수 등 구체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③의 막연한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신화는 신성한 장소와 아득한 시간을 배경으로 한다. 막연한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은 설화 중 민담의 특징이다.

지식 창고 - 설화의 종류와 특징

구분	신화	전설	민담
전승 범위	민족·씨족 단위	지역 단위	민족·지역 초월
주인공	신적 존재	비범한 능력의 영웅적 존재	평범한 인간
전승자의 태도	신성하다고 믿음.	진실하다고 믿음.	흥미롭다고 여김.
배경	신성한 장소와 아득한 시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막연한 시간과 장소(옛날 옛적 등)
증거물	포괄적 증거물(우주, 국가)	구체적 증거물(자연물, 지명 등)	없음.
결말	주인공의 소원 성취	비극적 결말	행복한 결말

2. ③의 '인물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요약한다.'는 '인물의 생애와 업적, 성품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인 전기문을 요약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3. 유화의 말에서 해모수가 하늘나라 임금, 즉 천제의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모수는 신적인 존재이다.

오답 해설

- ① 우발수는 유화가 귀양을 온 곳이다.
③ 해부루는 아들이 없어 금와가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하였다. 금와는 해부루가 동부여에서 만난 인물로 해부루의 아들이 아니다.

- ④ 금와왕은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이라는 유화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궁궐로 데려왔다고 하였다.
⑤ 하백이 딸에게 화가 난 이유는 신분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가 아니라 혼인도 하지 않고 낯선 남자를 따라가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4. 금와왕은 유화가 '평범한 여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므로 ④ '평범한 여인'은 유화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5. 인물(유화), 사건(부모의 허락 없이 해모수와 사랑을 나누어 벌로 귀양을 옴.), 배경(우발수)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6. 유화가 있는 방에 햇빛이 비치고 유화가 피하려 해도 자꾸 따라다니며 비추더니 그 뒤로 유화의 배가 불러왔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② 금와왕은 유화가 알을 낳자 꺼림칙하게 생각하여 알을 없애 버리려고 하였다.
③ 금와왕의 일곱 아들이 주몽과 어울려 놀았다고 해서 금와왕이 주몽을 아들처럼 기른 것은 아니다. 만아들이 주몽을 없애자고 하자 주몽에게 말 기르는 일을 맡기는 것을 보아도 아들처럼 기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대소는 자신보다 주몽의 재능이 뛰어난 것을 시기한 것이지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기한 것이 아니다.
⑤ 당시 동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활을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주몽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7. 금와왕이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는 일 자체가 주몽의 신성성이나 비범함을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8. ㉠은 '평범하지 않다'의 의미이다. '기묘하다'는 '생김새 따위가 기이하고 묘하다.'란 뜻이므로 ㉠과 바꾸어 쓰기에 의미가 적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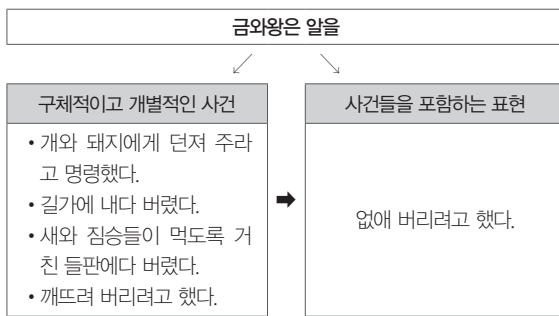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② 출중하다: 여러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지다.
③ 겹출하다: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
9. '백발백중(百發百中)'은 '백 번 쏘아 백 번 맞힌다.'라는 뜻으로 '활 따위를 쏠 때마다 겨눈 곳에 다 맞음.'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①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을 이룸.
- ② 백절불굴(百折不屈): 백 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굽히지 않음을 이룸.
- ③ 백전백승(百戰百勝): 싸울 때마다 모조리 이김을 이룸.
- ⑤ 백전노장(百戰老將): 수많은 싸움을 치른 노련한 장수를 이룸.

10. 사건③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들은 결국 금와왕이 알을 없애려고 한 것들이므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1. 6에는 말을 알아보고 기르는 재주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여 행동하는 주몽의 비범함이 드러나 있다.
- 12. 힘이 좋고 날쌔 말을 자신이 가지려고 일부러 비쩍 마르게 한 것이다.
- 13. 자연물인 '물고기와 자라'가 주몽을 도와준 것은 주몽이 자연을 지배하는 신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즉 ㉠은 주몽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사건이다.
- 14. ㉠은 넓으면서 물살이 거친 강에 가로막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 '막다른 골목'은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의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는 군사들이 도망치는 주몽을 더 이상 쫓지 못하고 발을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은 '개에게 쫓기던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개가 쫓아 올라가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본다는 뜻으로,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의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 낙동강 오리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홀로 소외되어 처량하게 된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다 된 죽에 코 풀기: 거의 다 된 일을 망쳐 버리는 주책없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 첩첩산중(疊疊山中):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이란 뜻. 어려운 일이 더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눈 가리고 아웅 한다.: 얹은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
- ④ • 오르지 못할 나무: 자기 능력 밖의 불가능한 일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 강 건너 불구경: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여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모양
• 혹 떼려 갔다가 혹 붙여 온다.: 자기의 부담을 덜려고 하다가 다른 일까지도 맡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시험엔 이렇게!!

180~182쪽

1. ⑤ 2. 주몽의 아버지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이고, 어머니는 물의 신 하백의 딸이기 때문이다. 3. ① 중요(중심, 핵심)
㉠ 간추려 4. ④ 5. ③ 6. 목적 7. ⑤

- 1. 아들이 없던 해부루는 금와를 만나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으므로 금와왕의 아들인 대소와 해부루는 혈연 관계가 아니다.
- 2. 주몽을 고귀하고 신성한 혈통을 지닌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몽의 아버지는 하늘나라 임금의 아들인 해모수이고, 주몽의 어머니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이기 때문이다. 즉 주몽은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의 핏줄이므로 고귀하고 신성한 혈통이라고 할 수 있다.
- 4. 요약은 세부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중심 내용만 정리하는 것이다.
- 5. 주몽의 뛰어난 활 솜씨는 '비범한 능력'에 해당한다.
- 7. (가)의 목적은 신화 속 인물의 혈통과 탄생 과정 탐구에

있으므로 주로 주몽의 혈통과 탄생을 중심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다. ⑤ ‘주몽을 해치려는 대소의 음모’와 관련된 내용은 ‘주몽의 혈통이나 탄생’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삭제해도 된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86~187쪽

1. ③ 2. ⑤ 3. ⑤ 4. ③ 5. 아이는 뺨어난 용모에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으며, 활 쏘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주몽이라 불리었다. 6. ④ 7. ①, ④ 8. 말을 알아보고 기르는 재주, 자신에게 닥쳐올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 9. ④ 10. 고구려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읽었다.

1. 이 글은 전설이 아니라 신화이다.

오답 해설

- ① 동부여의 왕인 금와가 궁궐에 유화를 데려온 뒤 주몽이 태어나 성장하는 내용이므로 주된 배경은 동부여이다.
- ② 알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등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다.
- ④ 주몽은 하늘나라 임금과 물의 신 하백의 혈통을 지닌 고귀하고 신성한 인물로 등장한다.
- ⑤ 주몽이 태어나서 고구려를 세우기까지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지식 창고 - <주몽 신화>의 뒷부분 줄거리

주몽은 졸본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운 뒤 비류왕 송양과 대결하여 크게 승리한다. 왕위에 오른 지 19년 만에 하늘에 올라간 뒤 내려오지 않아서 태자가 왕이 남긴 옥채찍을 용산(龍山)에 묻고 장사를 지낸다.

2. 알에서 태어난 아이는 활 솜씨가 뛰어나 주몽이라고 불렸다고 하였으므로 ⑤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오답 해설

- ① ‘송배하다’는 ‘우러러 공경하다.’의 뜻이다. 동부여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고 그 능력을 대단하게 여겼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만 이들을 송배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② 해부루는 북부여의 왕이었지만 천제의 명령으로 동

부여로 피해 가서 왕이 되었으므로 금와는 북부여가 아닌 동부여의 왕이 된 것이다.

③ 하백이 화가 난 것은 유화가 해모수와 헤어져서가 아니라 부모 허락 없이 낯선 남자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④ 금와왕은 유화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유화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궁궐로 데려온 것이며 알을 낳자 꺼림칙하게 생각하였지만 알을 없애려고 했을 뿐 유화를 내쫓은 것은 아니다.

- 3. 과거 사건이라도 중요한 내용이면 요약에 넣어야 한다.
- 4. 버려진 알을 동물들이 보호하는 것은 알이 비범하고 신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 5. <조건>에 맞게 ‘아이의 용모, 재주, 활 쏘기 능력, 주몽이라 불린 점’ 등을 넣어 간추린다.
- 6. (가)에는 주몽이 금와왕의 아들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 시련을 겪는 모습이 담겨 있다.

지식 창고 - 영웅의 일대기 구조

「동명왕 신화」에는 주몽의 탄생으로부터 고구려 건국까지 주몽의 일대기가 담겨 있다. 주몽의 일대기는 ‘고귀한 혈통-기이한 탄생-비범한 능력-위기와 시련-위기의 극복-위대한 업적’이라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후에 「홍길동전」, 「유충렬전」 등의 영웅소설에 영향을 주었다.

- 7. 대소는 주몽의 탄생이 기이한데다가 재주 또한 뛰어나자 시기심과 자신의 왕위 계승에 위협이 될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 음모를 꾸민 것이다. 금와왕이 주몽을 편애하거나 주몽의 신분을 멸시해서라고 보기 어렵다.
- 8. 주몽은 말을 알아보고 기르는 재주가 있어 좋은 말을 일부러 마르게 하여 자신이 가졌는데, 이는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 9. 주몽은 강물 앞에서 자신이 신성하고 고귀한 혈통을 지닌 존재임을 드러내며, 도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좌절하여 한탄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0. <보기>에는 고구려가 건국되기까지의 과정 위주로 내용이 요약되었으므로 영미가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알려는 목적으로 글을 읽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동양의 그림과 서양의 그림

꼭꼭 확인 문제

191~195쪽

1. ④ 2. ② 3. ② 4.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이의 정신과 인격을, 서양에서는 그림의 기록적인 측면이나 표현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5. ⑤ 6. ④ 7. ⑤ 8. 동양화는 수정이 어려운 종이와 묵을 사용하며, 서양화는 그리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한 캔버스와 유화 물감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 9. ② 10. ④ 11. ② 12. ② 13. ② 14. 동양화로 보인다. 채색을 하였지만 여백이 있고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보다는 감성이나 정신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설명문이므로 주장과 근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논설문을 요약하는 방법이다.
2. 이 글에서 서양에서는 스승의 그림 형태를 그대로 따라 그린다고 이해할 만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이의 정신과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③ 동양에서는 그림을 인격을 수양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 ④ 동양에서는 사물을 보이는 대로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 등은 그림을 그리는 기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대상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을 중시한 서양화를 보면 기초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다.
- ⑤ 서양에서는 입체감을 살려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사실적인 그림을 중요하게 여겼다.

3. ②~③에서는 동양 그림과 서양 그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지식 창고 - 설명 방식

- 분류: 하위 개념들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 설명하는 방식.
- 분석: 화제를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
- 비교: 두 화제의 공통점을 건주어 설명하는 방식.
- 대조: 두 화제의 차이점을 건주어 설명하는 방식.
- 과정: 어떤 일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진행 과정에 따라 설명하는 서술 방식.

- 예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
- 인과: 원인을 들어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

4.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정신적인 면을, 서양에서는 기록적인 측면이나 표현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다.
5. 이 글은 동양의 그림과 서양의 그림의 차이점이라는 정보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다.
6. 이 글에서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비유'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은 전체적으로 동양의 그림과 서양의 그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⑤에서 '한지나 화선지~차이점은 무엇일까요?'와 같이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 ③ 이 글은 '~합니다.', '~일까요?', '~있지요.' 등 독자와 대화하는 듯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이 글은 동양화의 서양화의 차이점을 '그림을 그리는 재료, 그림을 그리는 방법' 등으로 항목화하여 나열하는 병렬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지식 창고 - 병렬식(열거식) 구성

글을 구성할 때 중요한 항목들을 뽑아 하나씩 늘어놓는 방식을 말한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첫째, 둘째 등으로 임의로 배열할 수 있는데 대등한 항목들이므로 순서는 바꾸어도 상관없다.

7. 동양과 서양의 그림 재료가 다르다는 내용은 언급되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⑤에서 유화 물감은 손쉽게 덧칠하거나 그림을 고쳐 그릴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장점으로 볼 수 있다.
- ② ④에 주로 '한지나 화선지 또는 비단'에 그린다고 나와 있다.
- ③ ⑦에서 먹으로 그릴 때에는 선으로 가늘게 그리는 작업이 수월해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발달하였기에 동양의 미술을 '선의 예술'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 ④ ⑦의 마지막 문장에서 서양 미술은 '대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8. ㉠은 '중간 2'에서 제시한 그림을 그리는 재료의 차이를 가리킨다.
9. '일필휘지'는 한 번에 붓질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뜻으로 이는 한번 그리면 수정하기 어려운 먹의 특성과 관련해 생긴 말이다. 선으로 가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설명하는 글을 요약할 때는 중심 내용을 간추려 설명문의 구조에 맞게 요약한다.
- 오답 해설**
- ①, ②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하는 것은 이야기 글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 ③ 육하원칙에 따라 요약하는 것은 기사문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 ⑤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요약하는 것은 논설문이나 연설문 등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11. 서양의 그림은 배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백이 거의 없다.
12. 설명문은 '처음-중간-끝'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은 중간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단계인 끝부분이다.
13. 동양의 그림에서 여백을 두는 이유가 그림 재료 때문만은 아니다.
14. 그림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서술한다.

시험엔 이렇게!!

196~199쪽

1. ⑤ 2. ⑤ 3. 처음-㉠, 중간-㉡, 끝-㉢ 4. ④

1. 사물을 보는 시각이 사실적인 것인 <그림 2>이다.
2. 요약은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므로 세부 정보를 보완한다는 것은 요약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4. ⑥~⑦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림 재료의 차이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다르게 발전했다는 것이므로 제시된 목적에 부합한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202~203쪽

1. ④ 2. ② 3. ⑤ 4. ④ 5.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이의 정신과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6. ② 7. ⑤ 8. ④ 9. ④ 10. 먹을 이용해 선으로 표현하였고, 넓은 여백을 통해 풍경과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1. 이 글은 동양의 그림과 서양의 그림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목적으로 쓴 설명문이다.
2. (가)는 설명 대상을 소개한 '처음' 단계, (나)~(라)는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중간' 단계, (마)는 설명을 마무리하는 '끝' 단계이다.
3. 이 글은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로 대조의 설명 방식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③ 현재에 와서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지 두 그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4. '그리스·로마 신화나 성경'은 종교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을 뿐 신화나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②는 (라)에, ③은 (나)~(다)에, ⑤는 (마)에 제시되어 있다.
5. (나)에서는 정신과 인격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양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6. 읽기 목적이 다르면 요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7. <보기>는 동서양의 그림에서 여백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마)는 여백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양 사람의 예를 든 내용으로 <보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예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뒤에 이어지기에 적절한 문단은 (마)이다.
8. '한 번의 붓질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일필휘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덧칠을 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9. ㉠은 '서양에서 그림을 그릴 때에는 꼼꼼한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이다.
10. 이 글에서 설명한 동양화의 특징을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먹을 이용하여 그린 점, 선으로 표현한 점, 넓은 여백을 활용한 점 등을 찾을 수 있다.

(3) 로봇,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꼭꼭 확인 문제

207~211쪽

1. ① 2. ③ 3. ⑤ 4.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돌볼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로봇을 연구하게 되었다. 5. ② 6. ④ 7. ④ 8. 로봇을 개발해야 한다. 9. ② 10. ⑤ 11. ③ 12. • 강연자의 대답: 로봇을 개발할 때 이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렇게 답할 것이라 생각한 이유: 강연자는 7에서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는 법과 제도가 자동차를 편리한 도구로 만든 것처럼 로봇 개발의 경우에도 그럴 것이라고 근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1. 강연의 '처음' 부분에는 강연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소개한다. 이 강연에서는 1에서 '여러분은 로봇을 왜 만드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다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 이 강연에서 아톰 만화 영상을 보여 주지는 않았다.
3. 강연자는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 하는 동생을 로봇이 돌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동생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37년 넘게 어머니 혼자 온종일 동생을 돌봐 오셨다는 말에 어머니의 헌신에 대한 강연자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 ② 강연자는 로봇이 동생처럼 아픈 사람을 돌봐 주고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로봇 발명가가 된 것이다.
- ③ 강연자는 아톰으로 인해 로봇에 관심이 생겨 로봇 과학자, 로봇 발명가가 되었다.
- ④ 1에서 강연자는 로봇 개발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고 하였다.
4. 2의 가족 이야기에서 강연자가 로봇을 연구하게 된 계기를 확인할 수 있다.
5. 강연을 들을 때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는지 유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 강연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다면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강연에 반드시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이 강연에서 설명 대상을 다른 것에 빗대는 비유는 사용

되지 않았다.

7. 나. 고령화 사회가 되어 일손이 부족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사회가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유지되려면 각 부분을 맡아 일할 노동력이 필요하다.
다. 3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진부할 정도로 많이 들었다고 했으므로, 현재 사회 문제로 자주 언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 4에서 정밀도가 필요한 수술에 활용하거나 두메에 배치하여 원격 조종으로 의료 처치를 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 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렵고 위험한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할 사람이 줄어든다.
- 르. 3에서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사회 현상을 예상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뿐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8. 3~4 문단은 모두 로봇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든 것이다.
9. 강연자는 로봇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자고 했다. 법과 제도 때문에 로봇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강연에서 확인할 수 없다.
10. 이 강연에서는 6에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뒤 7에 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11. ㉠의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 상황을 이루고 있으므로 '오히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2. <보기>는 6에서 제시한 반론과 동일한 내용이다. 따라서 강연자는 7처럼 법과 제도를 만든다는 해결 방안을 답으로 제시할 것이다.

시험엔 이렇게!!

212~214쪽

1. ② 2. ① 3. • 강연자의 대책: 강연자는 자동차의 예처럼 로봇의 위험성도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나의 견해: 자동차가 개발될 당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다르고, 기술적인 위험성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상황이므로 간단히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것만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⑤

1. 이 강연에서 어머니가 강연자를 로봇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 이 강연에서는 로봇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근거를 들지 않았다.
3. 강연자는 로봇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면 로봇이 인간에게 위협적인 도구가 된다는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생명체라고 해서 모두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은 근거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218~219쪽

1. ③ 2. ⑤ 3. ③ 4. ③ 5. ① 6. ④ 7. ⑤ 8. 강연자는 로봇이 부족한 일손을 채워 줄 수 있으며,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사람이 가기 위험한 곳에 투입되어 사고 현장을 수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로봇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1.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로봇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2. (다)에서 로봇이 군사적으로 사용되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상 반론을 소개하고, (라)에서 자동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보기>는 로봇 개발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므로 (다)에 소개된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 강연자는 로봇 개발을 주장하는 근거로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예의를 지키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을 뿐, 로봇보다 인간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5. 주장과 근거의 독창성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을 때의 유의점으로 보기 어렵다.
6. 이 강연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 일손이 부족할 때 로봇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로봇 때문에 일리가 부족해진다는 내용은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라)에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②, ⑤ (다)에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③ (가)에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7. ㉠은 만화 속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는 존재', 즉 아톰 같은 로봇을 지시하며, ㉡는 '어렵고 위험한 일'

을 가리킨다.

8. 이 강연은 로봇의 필요성과 로봇이 하는 일을 근거로 로봇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222~226쪽

1. ③ 2. ② 3. ④ 4.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옮겨 왔고, 아들이 없었던 해부루가 금와를 아들로 삼아 동부여의 왕 자리를 물려주었다. 이후 금와왕은 유화를 발견해 동부여로 데리고 왔고, 유화에게서 주몽이 태어났다. 금와왕의 아들인 대소의 음모로 위협을 느낀 주몽은 동부여에서 탈출해 졸본에 이르러 고구려를 세웠다. 5. ③ 6. ② 7. ③ 8. 동양에서는 주로 한지나 화선지 또는 비단에 먹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종이나 천에 먹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리는 순간 먹이 바탕에 바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 위에 덧칠을 하거나 고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글씨나 그림을 단숨에 죽 내리 쓰거나 그림.'이라는 뜻의 '일필휘지'가 중요하였다. 9. ② 10. ② 11. ① 12. 로봇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을 제시하였다. 13. ⑤ 14. ⑤ 15. ④ 16. ③ 17. 인물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18. ② 19. ④ 20.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21. ④

1.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만을 정리한다.
2. '권선징악(勸善懲惡)'이란 '착한 행실을 권하고 악한 행실은 징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로, 고전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 유형이다. 주몽 신화에는 주몽이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고구려를 세우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권선징악적 주제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3. 주몽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주몽이 백발백중의 활쏘기 능력이 있기 때문이므로 ㉠(위기와 시련)가 아니라 ㉡(비범한 능력)가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4. <보기>의 목적을 고려하면 고구려 건국 유래와 과정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5. 이 글에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분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④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질문으로 화제를 제시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글은 전체적으로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가 생긴 이유를 그림을 보는 시각, 재료, 그림을 그리는 방법, 여백 처리 방식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6.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양화는 꼼꼼하게 덧칠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한 번의 붓질로 완성하는 동양화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완성 시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동양화가 서양화보다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②와 같은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7. (다), (라)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그림 재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 서양화와 동양화의 표현이 다른 까닭은 무엇인지 화제를 제시함.

② (나): 서양에서는 그림의 기록적인 측면이나 표현 방법을 중요하게 여김.

④ (마): 재료의 특성 때문에 동양화와 서양화는 매우 다르게 발전하였는데, 동양화에서는 순간적인 표현력이, 서양화에서는 꼼꼼한 표현 과정이 중요해짐.

⑤ (바): 동양화는 여백을 중요시하는 반면 서양화는 여백을 두지 않음.

8. '일필휘지'란 붓을 들어 글씨나 그림을 단숨에 죽 내리 쓰거나 그리는 것을 뜻한다. 먹은 수정이나 덧칠이 불가능하므로 이렇게 한 번의 붓질로 완성하는 순간적인 표현력이 강조된 것이다.

9. '판단하며 듣기'란 말하는 이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듣는 것이 아니라 주장이나 근거가 이치에 맞는지 파악하며 듣는 것이다.

10. ㄱ. (다)와 (라)에서 과거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다.

ㄴ. (가)에서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11. 이 강연에서는 로봇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법과 제도를 마련한 뒤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예로 들고 있다. 자동차와 로봇이 비슷한 과학 기술로 개발된다는 점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지 않았다.

12. (라)에 제시된 자동차의 사례처럼 로봇도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다)~(라)는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원인과 결과의 순서로 내용을 전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나)는 이야기 글이므로 인물, 사건, 배경 등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② (가)~(나)는 천신과 수신의 후손인 주몽의 건국 과정을 담은 신화이다.

③ (다)~(라)는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쓴 설명문이다.

④ (다)~(라)는 설명하는 글이므로 설명 대상에 대한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14. (가)의 중심 사건은 유화가 알을 낳았고, 금와왕이 알을 없애버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으나 다 실패하자 결국 다시 유화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15. (나)에는 대소의 음모와 추격을 피해 동부여를 떠나는 주몽의 시련이 주로 다루어져 있다.

16. 동양에서는 시, 글씨, 그림을 모두 잘하는 것을 이상이라고 여겼다고 했으나 그림에 시를 넣어 정신과 인격을 표현했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17. 신화 속 인물은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며 신성한 존재라는 특성을 보여 준다. 금와왕이 알을 없애려 해도 동물이 보호하고 단단하여 깨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알이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는 신성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18. (가)~(다)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므로 ②의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다)는 설명문, (라)~(마)는 강연이다.

③ (라)에서 신뢰할 만한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④ (라)~(마)는 청중을 대상으로 일정한 주제에 대해 말하는 강연이므로 공식적인 말하기이다.

⑤ (가)와 (라)에서 질문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19. (라)는 ‘로봇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다. 따라서 중심 내용은 로봇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④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중심 내용 요약으로 적절하지 않다.
20. (라)~(마)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말하기를 요약할 때는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요약해야 한다.

지식 창고 – 주장하는 글의 내용 요약하기

주장하는 글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할 목적으로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그러므로 제기된 문제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본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의 구조나 논증 방법도 생각해 본다. 그리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연결하거나 묶어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체 내용을 간추려 낸다.

21. ‘㉠ 정밀하다’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여 빈틈이 없고 자세하다.’의 뜻이나 ‘성글다’는 ‘물건 사이가 뜨다.’로 반대의 뜻을 지닌 말이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227~229쪽

(1) 열두 살에 나라를 세우다

1. 유화는 혼인도 하지 않은 채 해모수와 사랑을 나누고 부모에게 쫓겨나 우발수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때 동부여의 왕 금와가 유화를 발견하고 궁궐로 데려왔다. 2. 물고기와 자라와 같은 자연물이 위기에 처한 주몽을 돕는다는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주몽의 신성성을 부각하고 있다. 3. 신화 속 인물의 혈통과 탄생 과정을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2) 동양의 그림과 서양의 그림

1. 동양의 그림과 서양의 그림의 차이점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동양의 그림과 서양의 그림의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2. 〈그림 1〉은 먹을 이용해 선으로 표현하였고, 〈그림 2〉는 유화 물감으로 색을 입혀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은 넓은 여백을 통해 풍경과 분위기를 전하고 있으나, 〈그림 2〉는 배경을 가득 채웠다. 3. 재료의 특성 때문에 동양화와 서양화는 매우 다르게 발전하였는데, 동양화에서는 순간적인 표현력이, 서양화에서는 꼼꼼한 표현 과정이 중요해졌다.

(3) 로봇,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 뇌 병변 장애를 지닌 동생을 돌봐 줄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로봇 과학자가 되었다. 2. •사람들 대신 어렵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다. •사람이 하기 어려운 수술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의사가 없는 오지에 수술 로봇을 배치해 원격 조종 수술로 응급 환자를 구할 수 있다. 3. [예시 답] ㉠ 없다. ㉡ 로봇을 개발할 때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자동차의 사례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열두 살에 나라를 세우다

1. (가)에는 금와가 유화를 만나 궁궐로 데려온 사건과 유화가 쫓겨난 사건이 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 두 사건을 간추려서 요약하면 된다.

평가 요소	확인(✓)
인물, 사건, 배경이 드러나게 요약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요약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물고기와 자라가 위기에 처한 주몽을 돕는다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주몽이 하늘의 임금과 물의 신의 혈통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사건이다.

평가 요소	확인(✓)
주몽의 신성성을 부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물고기, 자라 등의 협력을 언급하였다.	
조건에 제시한 형태의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보기〉는 주몽의 혈통과 탄생을 중점적으로 요약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읽기 목적이 신화 속 인물의 혈통과 탄생 과정 탐구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혈통, 탄생 과정 등의 말이 포함되었다.	
3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동양의 그림과 서양의 그림

1. 이 글은 동양의 그림과 서양의 그림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차이는 왜 발생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이다.

평가 요소	확인(✓)
중심 소재인 동양의 그림과 서양의 그림이 언급되었다.	
글을 쓴 목적(설명, 정보 전달)을 분명히 서술하였다.	
4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나)는 그림을 그리는 재료, (다)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 (라)는 여백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점에서 찾고 있다. 이런 특성을 <그림 1>과 <그림 2>에서 확인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평가 요소	확인(✓)
<그림 1>과 <그림 2>의 재료와 표현 방식을 서술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의 여백 처리 방식을 서술하였다.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여 서술하였다.	

3. (다)는 동양과 서양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다를 것을 설명한 글이다. <보기>의 요약 방법에 따라 중심 문장을 찾고 중심 내용을 간추려 요약한다.

평가 요소	확인(✓)
중심 문장과 중심 내용을 찾아 간추렸다.	
대조의 설명 방식을 활용하였다.	

(3) 로봇,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 강연자는 몸이 아픈 동생을 돌볼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자신을 로봇 과학자로, 로봇 발명가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평가 요소	확인(✓)
동생의 상황과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연결하여 서술하였다.	
문맥이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나)~(다)는 로봇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로봇은 고령화 사회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워줄 수 있으며, 의료용 로봇은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나)~(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를 모두 찾아 썼다.	
문맥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라)에 제시된 근거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자유롭게 내리되,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이치에 맞게 쓰도록 한다.

평가 요소	확인(✓)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판단한 이유를 이치에 맞게 서술하였다.	
문맥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5 독서는 폭넓게, 표현은 다양하게

(1) 천국의 아이들

꼭꼭 확인 문제

239~257쪽

1. ⑤ 2. ① 3. ⑤ 4. 시각 이미지만으로 전달하기에 부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5. 특별반 학생들을 문제 학생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6. ⑤ 7. ② 8. ④ 9. ① 10. 어차피 일 등을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11. ② 12. ① 13. ① 14. 유진과 정훈의 소통 과정을 보여 준다. / 유진이 정훈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정훈도 유진과의 소통을 거부하지 않는다. 15. ③ 16. ④ 17. ⑤ 18. ④ 19.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20. ② 21. ③ 22. ④ 23. ⑤ 24. 유진이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뺏어 자기 목에 두른다. 지혜가 들고 있는 화장품을 빼앗는다. 25. ② 26. ③ 27. ① 28. ② 29. 성아는 평소 정훈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 / 성아는 정훈을 좋아하고 있다. 30. ③ 31. ② 32. ② 33. 홍구에게 아이들의 저녁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홍구와 아이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이다. 34. ⑤ 35. ① 36. ④ 37. ① 38. 홍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 39. ③ 40. ⑤ 41. ① 42. ⑤ 43. 유진은 아이들을 바다에 데려가고 싶은데, 교장은 아이들을 바다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44. ④ 45. ② 46. ④ 47. 바다에 갈 수 없어 풀이 죽어 있다가 홍구의 등장으로 바다에 갈 수 있게 되자 표정이 밝아진다.

1. 이 글의 갈래는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이다. 소설은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는 반면, 시나리오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인물의 심리와 성격이 제시된다.

2. ❶에서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은 문제 학생들을 모아 방과 후 동아리 활동 특별반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② ❶에서 유진은 얼떨결에 특별반을 맡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❸에서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고 어리둥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④ ❸에서 유진의 제안에 성아가 탐탁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심하게 갈등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⑤ 2와 4에서 홍구는 특별반 학생들의 학생 동아리 한마당 참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유진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학생 동아리 한마당' 포스터를 홍구에게 보여 주고 있다. 그 까닭은 특별반 애들을 데리고 학생 동아리 한마당에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이런 내용이 홍구의 대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교무실에서 홍구와 유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유진의 제안에 홍구는 못마땅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유진과 홍구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
- ③ 학생 동아리 한마당 포스터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따로 자막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빠른 느낌의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라고 했을 뿐, 음악이 바뀌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흐름상으로 보아도 유진의 신나고 즐거운 심정을 보여 주는 밝고 경쾌한 음악이 깔리는 것이 적절하다.
4. ㉠에 쓰인 자막은 화면에 보이는 등장인물이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시각 이미지만으로 전달하기에 부족한 내용을 자막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5. '특별반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를 나간다고요?'라고 반문하는 대사와 '애들 데리고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그런 거지, 이렇게 일을 벌이라고 그런 것은 아닌데'라는 대사에서 특별반 학생들과 함께 학생 동아리 한마당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홍구의 부정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말에서 특별반 학생들을 여전히 문제 학생으로 바라보는 홍구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6. 자막은 화면에 제시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청각적 요소가 아니라 시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7. 유진은 학생 동아리 한마당에 아이들을 참가시키기 위해 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정훈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왜 해 보지도 않고 그러냐?', '안 해 보고는 모르는 거야.'라고 말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훈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지 포기하지 않고 정훈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8. '순식간에 들뜬 분위기'라는 말에서 전반적으로 들뜨고 호들갑스러운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상금에 대한 관심으로 아이들이 학생 동아리 한마당 참가 의사를 밝히며, 각자의 역할을 정하는 등 호들갑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고은, 형주, 지혜는 1등에게 1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밝히며 시끄럽고 호들갑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 ③ 성아는 고은, 형주, 지혜와는 달리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자신을 흉내 내는 형주를 나무라고 있긴 하지만 유진에게 화가 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 ⑤ 마지막에 정훈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므로 모든 아이들이 신나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 상금 이야기를 꺼내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유진은 자신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
10. '어차피 일 등 못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뭘 해서 일 등을 하는데요?', '해 봤자 뻔하니까.'라는 정훈의 대사에서 어차피 일 등을 못할 거라면 굳이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11. 하나가 정훈에게 악보를 읽으라고 하자 정훈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자 하나는 다시 한번 읽으라고 요구하지만, 정훈은 '아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려 버리고 결국 교실을 나간다. 하나의 지시에 정훈이 따르지 않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2. 하나가 뮤지컬 연습을 하기 위해 노래를 불러 보자고 하지만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악보를 '그냥 한번 쓱 보고' 마는 행동이나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당황한 하나'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뮤지컬 연습에 관심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13. 정훈은 하나와의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교실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한다.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 밖으로 나가 버리는 행동을 통해 정훈이 욕하는 성질이 있는 학생임을 알 수 있

으며,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면모를 지니고 있는 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다.

14. 정훈을 뒤쫓아 나간 유진은 8에서 공을 차는 정훈을 발견하고는 정훈이 찬 공을 정훈에게 패스하면서 정훈에게 말을 건다. 정훈과 유진이 공을 주고받는 과정은 둘 사이의 소통 과정을 보여 준다. 공을 주고받으면서 유진이 정훈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정훈이 이에 응하면서 정훈은 유진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15. 유진은 정훈에게 '말해 줘. 정확하게 말 안 해 주면 몰라.'라고 말한다. 정훈이 하나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까닭을 파악하고 정훈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사이다. 정훈이 악보를 볼 줄 몰라서 창피했다고 설명을 하자, 정훈의 행동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정훈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정훈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훈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유진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오답 해설

① 유진이 정훈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정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유진은 정훈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까닭을 묻고 답을 듣고자 한다. 정훈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꾸짖는 내용은 없다.

④ 유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훈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을 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정훈이 어렵고 힘든 학생이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유진은 정훈과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을 뿐, 정훈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정훈은 유진이 '알았어.'라고만 대답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왜 자신을 나무라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꾸짖거나 혼내지 않는 유진의 반응에 의아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S#44에서 '병민이 첫 소절을 부르려고 입을 떼는데, 방에 불이 꺼지고 노래 반주도 꺼진다.', '아이들은 짐을 싸 밖으로 나간다.'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병민은 노래를 부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8. 9에서 정훈과 함께 교실로 들어온 유진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아이들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다. 따라서

뮤지컬 연습을 하는 교실 분위기가 무기력하고 지루한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19. 유진은 아이들이 뮤지컬 연습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아이들을 나무라는 대신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무기력한 분위기를 바꿔 보기 위해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20. 고은은 '뮤지컬 하면은요, 이야기 같은 거 있어야 하잖아요. 대본 이런 거.'라고 말한다. 이어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 생각나서요.'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펼쳐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뮤지컬 대본에 쓸 이야기를 유진에게 들려주고자 유진을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21. 11의 상황은 장면 번호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S#47 뮤지컬의 내용 - 고은의 상상'이라는 말에서 고은의 상상 속 이야기가 화면에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면에는 성아 혼자만 움직이고 있고 학생 주임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미동도 없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22. ㉠은 화면 밖에서 들리는 고은의 목소리가 효과음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 주고 있을 뿐 ㉠이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유진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고은의 실제 목소리이므로 현실에서 고은이 실제로 하는 말이다.

②, ③ 효과음은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로 영상 언어의 청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⑤ 고은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현실 장면에서 고은이 상상한 이야기 장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은의 현실 속 목소리가 효과음으로 제시되어 자연스럽게 장면이 전환되는 효과를 주고 있다.

23. 일반적으로 배경 음악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S#48에서도 밝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음악은 비현실적이고 기묘한 상황과 어울려 성아 혼자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다.

24. 성아는 자기 혼자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유진이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뺏어 자기

목에 두르고, 지혜가 들고 있는 화장품도 빼앗는 등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껏 하고 있다.

- 25.** 성아는 친구들의 화장품이나 빵을 빼앗기도 하고 꿀밤을 먹이기도 하는데 이는 성아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해방감의 표현일 뿐, 평소 성아가 친구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성아가 정훈에게 하는 대화와 정훈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행동에서 성아가 정훈을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12**에서 유진은 ‘뮤지컬 작가 심고은!’이라고 말하며, 고은의 상상 속 이야기를 뮤지컬 대본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이로써 특별반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뮤지컬 연습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 ④ 성아는 고은의 빵을 빼앗아 먹기도 하고 형주에게 꿀밤을 먹이기도 하는데, 이는 성아가 느끼는 해방감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 ⑤ 성아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성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비현실적 상황 설정 때문이다.

- 26.** **12**에는 고은의 이야기에 몰입해 있는 유진과 아이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고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 모습,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뮤지컬 작가 심고은!’이라는 유진의 대사에서 고은이 이야기를 쓰는 데 소질이 있는 학생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고은은 이야기만 들려주었을 뿐 춤추는 것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고은이 유진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유진이 ‘뮤지컬 작가 심고은!’이라고 한 것은 고은이 뮤지컬 대본 구성을 잘해서 칭찬하는 대사이다. 고은이 뮤지컬 작가를 꿈꾸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 ⑤ 고은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

- 27.** 고은의 상상 속 이야기에서 성아가 정훈의 입을 맞춘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이야기에 몰입한 유진은 이야기 속 성아의 감정에 빠져든다. 그래서 옆 아이를 찰싹찰

싹 때리며 ‘어떡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 28.** **12**의 ㉠에는 유진과 아이들이 고은의 주변에 모여 고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대상을 사람의 눈높이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수평적인 각도로 대상을 촬영하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 29.** 시나리오에서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성아는 정훈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후 정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거나, 정훈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성아가 정훈을 좋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30.** 홍구가 뒤돌아서서 가는 행동은 유진과의 대화가 끝나서 돌아가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홍구는 아이들이 뮤지컬 연습을 잘하고 있는지 훑쳐보다가 유진에게 들킨다(㉠). 그리고 애들이 사고 안 치고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했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잘 하기는 한다고 칭찬을 한다(㉡, ㉢). 이어서 유진이 부탁하자 아이들에게 저녁을 사 준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홍구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내심 대견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31.** ‘처음과는 달리 모두 밝아 보인다. 손뼉을 치며 연습에 집중하는 아이들.’이라는 지문에서 뮤지컬 연습이 한창인 교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밝고 희망차고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배경 음악으로 쓰이면 적절할 것이다.

- 32.** 홍구는 뮤지컬 연습 중인 아이들을 몰래 훑쳐보다가 유진에게 들키자 어색하게 쑥 돌아선다. 특별반 아이들과 함께 학생 동아리 한마당에 참가하겠다고 유진이 제안했을 때 못마땅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유진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민망하고 쑥스러웠을 것이다.

- 33.** 유진은 홍구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홍구와 아이들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홍구에게 아이들의 저녁을 사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 34.** 홍구는 작은딸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학교 같이 다녀요?’라는 성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작은딸이 특별반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형주가 '우리 아빠랑 똑같다.'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 ② 홍구가 '작은 딸내미는 중학교 삼 학년.'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 ③ 홍구가 '형주 아버님도 63년생 토끼띠시냐?'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 ④ 홍구가 '오토바이 그것만 아니었으면……, 올해 대학교 갔겠네.'라고 말한 것과 형주가 '그럼 아들이 죽었어요?'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35. 형주는 홍구에게 먼저 말을 걸면서 홍구와 대화를 시도한다. 또한 형주는 홍구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불임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
36. 형주와 홍구의 대화를 통해 아이들은 홍구의 나이가 자기들의 아버지와 비슷함을 알게 되면서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또한 홍구와의 대화 과정에서 홍구의 큰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홍구가 자신의 아픈 상처를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홍구와 아이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가까워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7. 홍구의 큰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지고, 아이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다. 아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음을 알 수 있다.
38. 형주와 홍구의 대화 이후 아이들이 홍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홍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아이들이 홍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근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바다! 나 한 번도 안 가 봤는데.'라는 병민의 대사에서 병민이 바다에 가 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믿기지 않아 유진이 다시 한번 병민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도 병민은 '네.'라고 대답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성아와 형주가 다투는 이유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꾸 안 맞으니까 조금씩 신경질이' 났기 때문이지, 성아가 춤을 못 춘다든지 형주가 성아에게 평소 불만이

많아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④, ⑤ 지혜가 하기 싫다고 말하거나 고은이 유진에게 놀러 가자고 제안한 것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뮤지컬 공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연습에 지쳐 잠시 쉬고 싶기 때문이다.
40. 반복되는 연습에 지쳐 쉬고 싶고 놀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아이들에게 병민이 '바다 가고 싶다.'라고 말함으로써 아이들은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게다가 병민이 바다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아이들은 병민을 핑계로 바다에 가자고 유진에게 조르게 된다.
41. 아이들이 '바다!'를 외치며 유진에게 바다에 놀러 가자고 조르는 부분이다. 따라서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42. 교장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함부로 밖에 내보내었다가 사고가 생길 것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애들이 사고를 치면 그게 정 유진 선생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게 다 제 책임이 되는 거지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사고가 생길 것을 걱정하여 유진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43. 유진은 교장에게 아이들을 바다에 데려가는 것을 허락받고자 한다. 하지만 교장은 아이들의 사고를 우려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44. 18에서 교장은 홍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교장의 부탁을 홍구가 흔쾌히 승낙함으로써 아이들이 바다에 갈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바다에 가고 싶은 유진과 바다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교장 사이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45. 교장은 아이들에게 사고가 생길까 봐 걱정하여 유진의 부탁을 거절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바다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유진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고민하였고, 그 결과 홍구에게 같이 갈 것을 부탁한다. 홍구가 함께 따라가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탁을 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장 선생님도 애들한테 관심이 많으시네요.'라는 홍구의 대사에서도 확인된다.

46.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찍으면, 배경이나 인물의 전체적인 모습과 분위기를 잘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느끼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오답 해설

- ㄱ. 아이들을 크고 강력하게 보이게 하려면 낮은 위치에서 대상을 올려다보는 각도로 촬영을 해야 한다. 즉 대상을 크고 강력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카메라의 거리보다는 카메라의 각도에 따른 효과에 해당한다.
- ㄴ. 아이들의 표정을 보여 주려면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47. 유진은 교장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돌아와 ‘풀이 죽은 표정’으로 말을 꺼낸다. 아이들이 실망할 것을 걱정하여 풀이 죽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다가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고 홍구와 함께 바다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표정이 점점 밝아지며’ 즐거워한다. 홍구의 등장으로 바다에 갈 수 있게 되자 유진의 심리 상태가 변화한 것이다.

시험엔 이렇게!!

258~261쪽

1. ① 2. ④ 3. 인물의 표정을 통해 심리 상태를 보여 준다.
4. 홍구가 자동차를 타고 등장했음을 알려 준다. 5. ③

1. 특별반 아이들이 먼저 유진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유진이 ‘학생 동아리 한마당’ 축제를 우연히 알게 되어 특별반 아이들에게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2. S#72의 바닷가 장면에서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가는 모습은 아이들이 느끼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이 표현된 장면이다. 반복되는 연습에 지쳐 있던 아이들은 탁 트인 바다로 놀러 가 해방감을 느낀다.

오답 해설

① 배경 음악은 사건이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영화에서도 S#33에서 유진이 학생 동아리 한마당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는 빠른 느낌의 경쾌한 음악이 쓰였고, S#48의 고은의 상상 장면에서는 비현실적 상황에 맞는 밝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음악이 쓰였다.

② 정훈과 하나의 갈등, 유진과 교장의 갈등 등 여러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③ 정훈은 유진과 공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진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⑤ 성아가 정훈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성아와 정훈이 사랑을 키워 가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다.

3. <보기>는 클로즈업 샷에 해당하는 장면으로,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대상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면 대상의 표정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4. ‘자동차 경적 소리’라는 효과음은 홍구가 자동차를 타고 아이들 앞에 등장했음을 보여 준다.

5. 아침에 성아가 가방을 메고 혈레벌떡 학교로 달려가는 장면에는 경쾌한 느낌의 음악이 어울린다.

오답 해설

① 성아가 지각하여 학교로 혈레벌떡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모두 드러나도록 전체 모습을 찍어야 한다.

② 성아가 뛰어오는 모습을 촬영해야 하므로, 성아의 뒤쪽이 아니라 성아의 앞쪽에 카메라를 놓고 성아가 뛰어오는 쪽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성아가 달려오는 상황이 실감 나게 전달되도록 도로에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나 인물의 숨이 차오르는 소리 등을 효과음으로 넣는 것이 적절하다.

⑤ 고은의 목소리가 효과음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상상 속 이야기가 펼쳐지는 화면의 밖에서 현실 속 고은의 목소리가 들려오도록 연출해야 한다.

1. ③ 2. ④ 3. ④ 4. 신나고 즐거운 유진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신나고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5. ② 6. ① 7. ① 8. 분위기 전환을 위해 아이들을 노래방으로 데려갈 것이다. 9. ① 10. ⑤ 11. ② 12. 고은이 말하던 장면에서 고은이 상상한 이야기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13. ③ 14. ③ 15. ⑤ 16. 배경이나 인물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분위기를 드러내고, 아이들의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1. 이 글은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로,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이야기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실제 경험과 깨달음이 글에 직접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파악하며 읽어야 하는 글의 갈래는 수필이다.

오답 해설

- ① 시나리오에서는 인물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② 시나리오에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 ④ 시나리오에는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쓴 대본이기 때문에 영화에 쓰이는 영상 언어의 구성 요소들(화면, 자막, 대사, 배경 음악, 효과음)이 사용된다.
 - 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어떻게 영화화될지 구체적인 시각 이미지를 상상하며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2. S#33과 S#35는 '교무실(낮)'에서 유진과 홍구가 나누는 대화 장면이고, S#34와 S#36은 '특별반 교실(낮)'에서 유진과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 장면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독립적인 장면을 교대로 제시하여, 시간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3. 성아는 친구들의 칭찬이나 친구들이 자신을 흉내 내는 것이 쑥스러워 툴툴대는 것일 뿐, 노래에 자신이 없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형주와 고은은 상금을 가지고 싶어서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고(①, ②), 지혜는 친구들의 긍정적

인 반응에 호응하면서 공연에서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③). 하지만 정훈은 이런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어차피 일 등을 못 할 거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⑤).

4. '빠른 느낌의 경쾌한 음악'은 유진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유진은 '학생 동아리 한마당'에 아이들과 함께 참가함으로써 특별반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심지어 약간 의기양양한 표정'까지 짓고 흥구를 설득하고자 한다. 유진의 즐겁고 신이 난 심리 상태가 빠른 느낌의 경쾌한 음악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5. 정훈은 악보를 읽으라는 하나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뮤지컬 연습을 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악보를 읽어 보라는 하나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교실 밖으로 나간 정훈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정훈이 유진에게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 ~ 이런 말 안 해요?'라고 묻는 부분에서 정훈이 평소에 잘못을 지적받고 혼나는 일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유진은 정훈을 나무라거나 혼내지 않고 정훈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④ 유진은 정훈과 공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정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 ⑤ 정훈이 악보를 읽지 못해 창피함을 느꼈다면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대신에 하나에게 그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정훈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도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6. (나)에서 유진이 정훈에게 왜 하나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교실 밖으로 나왔는지를 묻자, 정훈은 악보를 볼 줄 모르는 게 창피해서였다고 대답한다. 이를 통해 (가)에서 정훈이 악보를 읽지 못해 창피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하나는 정훈에게 악보를 읽으라고 요구하지만 정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읽어 보라

고 요구하는데, 정훈은 ‘아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려 버린다. 그러자 하나는 ‘아, 기막혀.’라고 말하며 유진에게 ‘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라고 묻는다. 이런 반응을 통해 하나가 무척 당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8. 유진이 정훈과 함께 교실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지루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이를 보면서 유진은 ‘노래가 원래 이런 분위기에서는 잘 안 되는 거 같아.’라고 말하며 분위기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아이들한테 친숙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9. (나)와 (다)에는 고은이 상상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성아가 지각하여 학교로 험레벌떡 뛰어오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고은이 상상한 이야기일 뿐, 이것을 통해 평소 고은이 지각을 자주 하는 학생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10. ‘재밋기도 하고요, 그래서요.’는 고은의 목소리로 효과음(E.)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청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자막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② 아무런 미동 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홍구’를 보고 성아가 다가가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멈춰 있는 홍구와 이를 바라보는 성아의 모습이 모두 화면에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홍구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서 있으며, 이런 뜻밖의 상황에 성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모두 보여 주기 위해서는 둘의 표정을 각각 가깝게 확대하여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성아는 미동이 없는 학생 주임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고, 고은은 이런 상황이 재밋기도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은 밝고 경쾌한 느낌의 음악이 어울린다.
- ④ 고은의 목소리는 유진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현실 속 목소리로 효과음(E.)으로 처리되어 있고, 화면에는 고은의 상상 속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으므로, 효과음은 화면 밖에서 들리는 것이 적절하다.
11. ㉠은 성아가 정훈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정훈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다. 따라서 성아의 표정이 잘

드러나도록 가까이에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가)에서 고은은 유진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나)에서는 고은의 상상 속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나)로 장면을 자연스럽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나)의 화면에 보이는 고은의 상상 속 장면에서 현실 속 고은의 목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3. (나)에서 유진은 아이들을 바다에 데려가는 문제로 교장과 갈등을 겪고 있다. 유진은 아이들을 바다에 데려가고 싶어 하지만 교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14. 홍구는 교장의 전화를 받고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가달라는 교장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한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도 애들한테 관심이 많으시네요…….’라고 덧붙인다. 홍구의 이 말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장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병민은 실제로 바다에 가 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이 말의 진위 여부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내용 전개 맥락으로 볼 때 병민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는 있다.
- ② 유진은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교장에게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다며 바다 여행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한다. 교장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 ④ 유진은 아이들이 실망할 것을 걱정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다. 아이들에 대한 원망은 느낄 수 없다.
- ⑤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가는 장면에서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홍구와 유진의 간섭 때문에 힘들어진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5. 유진과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홍구가 자신의 차에서 내는 소리로 화면에는 홍구의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다. 효과음을 사용하여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의 일을 관객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16. 대상을 먼 곳에서 찍음으로써 넓은 바다와 푸른 하늘이라는 전체 배경이나 바다로 뛰어가는 아이들의 전체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자유로움과 해방감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 포기하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

국문 확인 문제

275~279쪽

1. ② 2. ⑤ 3. ③ 4. ① 5. 가혹한 환경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다. 6. ② 7. ⑤ 8. ⑤ 9. ④ 10. 인간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려면 반드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 11. ③ 12. ③ 13. ⑤ 14. ② 15.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책에서 '늙은 매'가 한 말. 폭풍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그냥 서 있을 정도로만 강하면 된다는 말을 인용하여 근거로 삼았다.

- 글쓴이는 역사학자 토인비의 저서인 『역사의 연구』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여 가혹한 환경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다는 토인비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통과 시련을 회피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역사학자 토인비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적인 입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 ③ 토인비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하나의 대상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다.
 - ④ 고대 중국 문명의 발상지가 척박한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 ⑤ 토인비의 주장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을 뿐, 전문 용어를 풀이하는 내용은 없다.
- 책에 대한 독자들의 다양한 감상이나 평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황허강 유역은 험난한 곳이었지만, 양쯔강 유역은 기후가 따뜻하고 농토가 비옥해서 농사를 짓기에는 최적의 환경일 정도로 인간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 관한 인기 검색어를 찾기 쉽지 않으며, 만약 있다고 할지라도 인기 검색어만으로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백과사전이나 관련 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②, ③). 인터넷을 활용할 때에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지도, 동영상 자료 등을 찾아보는 것이 적절하다(④, ⑤).

- 토인비의 주장은 ①과 ②에 드러나 있다. ①에서는 가혹한 환경이 인간을 위협하면 그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다고 언급되었으며, ②에서도 가혹한 환경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 이 글의 갈래는 주장하는 글인 논설문이다. 논설문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창의적이고 독특할 필요는 없으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④에서 글쓴이는 '시련이나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시련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강인해지니까 말이다.'라고 시련이나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⑤에서 쥐 격리 실험을 통해 적절한 스트레스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② ⑥과 ⑦에서 글쓴이는 리셋 증후군을 비판하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보다는 그 상황을 참고 견디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③ 글쓴이는 시련이나 고통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 ④ 역경이 생겼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며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평소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 ⑤에서 '1960년대 초'에 쥐 격리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으므로, 최신 뉴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쥐 격리 실험 동영상을 얻으려 하는 것은 적절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
- ⑦에서 글쓴이는 '다른 상황이 된다 한들 역경이 없을 까?', '어떤 환경이든 고통스러운 과정은 있게 마련인데 그때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역경에 처했을 때 새로운 환경을 찾아 역경을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그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역경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역경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리셋 증후군은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10. 5에서 '이 실험은 인간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려면 반드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쥐 격리 실험을 통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보여 주고 있다.

11. 8에서 글쓴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겪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9와 10에서는 '늙은 매'의 말을 인용하여 고통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조금만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는 '이왕 겪어야 할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괴롭더라도 먼저 치르는 편이 낫다.'라는 뜻의 속담이다. 따라서 이 속담은 청소년기에 고통과 시련을 회피하면 나중에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니, 어차피 겪게 될 고통과 시련이라면 청소년기에 먼저 겪는 것이 낫다는 ㉠과 상통한다.

오답 해설

- ①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했으면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산이 높고 커야 골짜기가 깊다는 뜻으로, 품은 뜻이 높고 커야 품은 포부나 생각도 크고 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이다.
- ⑤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13. 책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에서 해당 책을 직접 찾아 읽어 보거나 인터넷 도서 검색을 통해 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14. ㉡ '폭풍'은 맞서 대항하거나 저항해야 하는 대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15. 글쓴이는 10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아가 보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9와 10에서 『그래도 계속 가라』에 나온 '늙은 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폭풍이 불어닥칠 때에는 그냥 서 있을 정도로만 강해도 되니까' 고통과 시련을 회피하지 말고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험엔 이렇게!!

280~283쪽

1. ④ 2. ③ 3. ⑤ 4. 책의 표지, 차례, 주요 내용 등의 정보 및 서평, 독자들의 감상 등을 찾을 수 있다. 5. ⑤ 6. ④

1. 글쓴이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회피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글쓴이는 고통을 견디라고 말하고 있다.
 - ②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어려움을 다룬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내용은 없다.
 - ③ 역경이 닥치면 피하지 않고 역경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⑤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 글쓴이는 리셋 증후군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리셋 증후군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3.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책에 대한 독자의 감상과 평가를 알고 싶다면 도서관이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인터넷 도서 검색을 통해 책의 표지, 차례, 주요 내용, 서평, 독자들의 감상 등 책에 관한 주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5. '리셋 증후군'에 관한 자료를 찾을 때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하고, 해당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여 활용할 필요는 없다.
6.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에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것보다는 자신이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모르는 것을 해소해 주거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한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286~287쪽

1. ⑤ 2. ③ 3. ④ 4.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딱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아가라. 5. ⑤ 6. ③ 7. ④ 8.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나이에 겪어야 할 고통에서 사춘기의 고통까지 함께 겪게 될 수 있다.

1. 글쓴이는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의 내용과 어느 생물학자의 실험, ‘늙은 매’의 말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 내고 있다. 글쓴이의 실제 경험을 제시한 내용은 없다.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에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 ② (다)에서 글쓴이는 ‘인간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려면 반드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라)에서 ‘잘하지 못할 바엔 처음부터 도전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은 도전이 두려워 포기해 버리는 자의 변명에 불과하다며 시련과 고통을 회피하려는 자세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 ③ 고대 중국 문명의 발상지, 청어와 관련된 이야기, 위격리 실험 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주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가)와 (나)에서 『역사의 연구』에 나온 토인비의 견해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 ‘청어’와 ‘물메기’의 사진을 찾아보는 것은 적절한 활동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청어와 물메기를 활용한 요리 방법은 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글을 읽을 때 필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3. ㉔은 도전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글쓴이가 비판하는 대상이다. 글쓴이는 ㉔을 ‘도전이 두려워 포기해 버리는 자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4. (라)에서 글쓴이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아가 보라.’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5. (다)에서 글쓴이는 청소년기에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마)에서 이 글의 독자인 청소년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회피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리셋 증후군은 글쓴이가 비판하는 현상일 뿐, 리셋 증후군에 대해 설명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다.
- ② 토인비가 시련과 고통을 대하는 자세는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갈 때 근거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③ 글쓴이가 좌절해 본 실제 경험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④ 글쓴이는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책의 내용을 근거로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을 뿐, 이 책에 대한 감상문을 쓴 것이 아니다.

6. 글을 읽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자료들을 통해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다. 또한 한 편의 글을 읽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글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중심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없다.
7. 이 학생은 자신에게도 리셋 증후군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므로, 리셋 증후군이 무엇이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리셋 증후군을 진단하는 방법이나 실제 사례는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따라서 리셋 증후군이 아닌 다른 증후군을 찾아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다)에서 글쓴이는 리셋 증후군을 겪는 청소년들이 고통이나 시련을 회피한다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나이에 겪어야 할 고통에서 사춘기의 고통까지 함께 겪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290~293쪽

1. ② 2. ① 3. ① 4. 학교에서 성아 혼자만 움직이고 있는 비현실적 상황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다. 5. ㉔: 편집하기 6. ⑤ 7. ② 8. ③ 9. ④ 10. 청어는 물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 다녀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11. ⑤ 12. ④ 13. ② 14. ③

1. 장면 표시를 보면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교무실, 특별반 교실, 강당 등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아 공간적 배경은 학교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등장인물 중 홍구와 유진은 선생님이고, 고은과 성아를 비롯한 특별반 아이들은 학생들이다.
- ③ 유진이 특별반 아이들과 함께 학생 동아리 한마당에 나가기 위해 뮤지컬 연습을 하는 것이 주된 사건이다.

고은의 상상은 (다)와 (라)에만 나온다.

- ④ (나)에서는 ‘지루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다)와 (라)에서 고은이 상상한 이야기를 뮤지컬 대본으로 하여 뮤지컬 공연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마)에서 ‘처음과는 달리 모두 밝아 보’이는 모습으로, ‘악보를 보며 열심히 노래’한다.
- ⑤ (가)에서 홍구는 특별반 아이들이 학생 동아리 한마당에 참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구와 유진의 갈등이 심해지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2. ‘걸렸구나.’는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고은의 목소리로 효과음에 들어 있는 말이다.
3. ㉠은 배경 음악이고, ㉡은 대사이며, ㉢은 효과음으로 모두 영상 언어의 창작적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과 ㉣은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는 시각 이미지(화면)로 영상 언어의 시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4. ㉤은 고은의 상상 속 장면에서 흐르는 배경 음악이다. 고은의 상상 속에서는 성아 혼자만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미동도 못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때 밝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음악은 이러한 상황을 실감 나게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5. 영상물을 만들 때 마지막 단계는 편집하기이다.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영상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촬영한 각각의 쏫을 시나리오의 내용에 맞게 이어 붙이고 배경 음악이나 자막 등을 넣어 최종 영상물을 만들어야 한다.
6. (가)에서 아이들은 홍구가 사 주는 저녁을 먹으면서 홍구와 대화를 나눈다. 그 과정에서 ‘홍구를 경계하는 마음이 한결 풀어’지고, ‘질문을 던’지는 등 홍구에게 마음을 연다. 홍구 역시 (다)에서 아이들을 바다에 데려가 달라는 교장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고 (라)에서 직접 차를 몰고 와 아이들을 바다로 데려간다. 이런 모습에서 홍구와 아이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유진은 (나)와 (라)에 등장하는데, 바다에 가자고 조르는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 주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

는 모습이 나와 있을 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다.

- ② (가)에서 형주는 홍구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불임성 있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나)에서 병민이 바다를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고, 가족 여행 역시 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유진이 깜짝 놀라 다시 물었을 때에도 병민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따라서 병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다)에서 교장 선생님은 홍구에게 유진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 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라)에서 홍구는 아이들을 바다에 데려가려고 차를 가지고 온다. 교장 선생님이 바다에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7. 학생들이 홍구가 사 주는 자장면을 먹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다. 카메라의 각도는 대상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낮은 위치에 있지 않고 대상과 눈을 마주치는 수평적인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평 앵글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며, 사람의 눈높이에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8. 이 글에서 글쓴이는 청어와 관련된 이야기, 『그래도 계속 가라』에 나오는 ‘늙은 매’의 말 등을 근거로 들어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에서 다루는 문제는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현실 회피 현상과 그 극복 방안이다. 논란이 되는 사회 문제는 나와 있지 않다.
- ② 이 글에 나오는 전문적 용어는 (나)의 ‘리셋 증후군’인데, 그 개념을 풀이하기 위해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리셋 증후군의 다양한 사례를 나열하지는 않았다.
- ④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글쓴이가 일상생활에서 실제 경험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⑤ (가)에서 토인비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로 소개하고 있다.
9. (다)와 (라)에서 글쓴이는 ‘늙은 매’의 말을 인용하여 ‘폭풍이 불어닥칠 때에는 그냥 서 있을 정도로만 강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폭풍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굳이 폭풍만큼 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경이 닥쳤을 때에는 폭풍만큼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반응이다.

10. 청어에게 ‘도전’은 그의 천적인 물메기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청어는 물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 다니는 방식으로 ‘응전’을 하여 더 오래 살아남게 되었다.

11. (나)에는 리셋 증후군의 뜻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리셋 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리셋 증후군 이외의 증후군을 찾아보는 것은 리셋 증후군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2. (다)에서 글쓴이는 ‘요즘 우리는 시련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지레 겁부터 먹는다. 어떻게든 도전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다시 못 일어나지 않을까부터 염려한다. 그런 두려움은 결국 도전을 무조건 회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중학생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요즘 청소년들에게서 도전을 무조건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 또한 모두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험난한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토인비는 가혹한 환경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인류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③ (다)에서 리셋 증후군을 보이는 청소년의 사례를 이야기할 때, 게임에 빚대어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 중독 증상이 사라지면 리셋 증후군도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나)에서 어미와 자주 떨어져 본 경험을 한 쥐들은 ‘성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이겨 내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용감하게 도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3. (가)에서 글쓴이는 토인비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고대 문명을 비롯한 모든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험난하고 척박한 환경이었음을 근거로 들어 가혹한 환경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인류의 역사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인비의 주장이 소개된 책 『역사의 연구』에 대한 정보(③)나, 고대 문명의 발상지(①, ④), 중국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소개하기 위해 언급한 황허강 유역과 양쯔강 유역의 환경 정보(⑤)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토인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의 생애 자체를 알아보는 것은 (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14. 이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시련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도피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이겨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고려할 때, (나)의 쥐 격리 실험은 적절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294~295쪽

(1) 천국의 아이들

1. ㉠: 고은이 말하던 장면에서 고은이 상상한 이야기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됨. ㉡: 배경 음악 2. 대상을 사람의 눈높이에서 촬영하여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3. 성아는 정훈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정훈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다가 입을 맞출 듯 정훈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간다. 이를 근거로 성아는 정훈을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포기하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

1. ㉠: 어려운 순간에 쉽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노력해야 한다. ㉡: 험난한 황허강 유역에서 고대 중국 문명이 생겨났다. 2. 인류의 역사는 가혹한 환경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 3. 본문 제재가 실린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 참고 문헌을 확인한다. / 실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다.

(1) 천국의 아이들

- 영상 언어의 구성 요소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청각적 요소에는 대사,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이 있다. (나)에 쓰인 효과음은 고은의 목소리가 화면 밖에서 들리는 것으로, (가)의 현실 상황에서 (나)의 상상 속 상황으로 장면을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실 속 고은의 목소리를 효과음으로 처리한 것이다. (다)에서는 고은의 상상 속 상황의 비현실성을 실감 나게 표현하기 위해 배경 음악으로 '밝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음악'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에 들어갈 효과음의 효과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에 들어갈 영상 언어의 청각적 요소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 카메라의 각도는 대상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높낮이에 따라 결정된다. <보기>의 화면은 대상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수평적인 각도로 사람의 눈높이에서 찍은 것이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촬영 방법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평가 요소	확인(✓)
카메라의 각도가 수평적인 각도임을 서술하였다.	
수평 각도로 촬영했을 때의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 시나리오에서 인물의 심리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A]에 나온 성아의 대사는 정훈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성아의 행동은 정훈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든지 입을 맞출 듯 정훈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성아가 정훈을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성아의 속마음을 정확히 서술하였다.	
성아의 속마음을 보여 주는 대사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성아의 속마음을 보여 주는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2) 포기하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

- 글쓴이의 주장은 (라)에 제시되어 있다. 어려운 순간에 쉽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는 (가)~(라)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그중 첫 번째 근거는 (가)에 소개된 토인비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험난한 황허강 유역에서 고대 중국 문명이 생겨난 것을 근거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인간은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에 들어갈 글쓴이의 주장을 정확히 서술하였다.	
㉡에 들어갈 첫 번째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 (가)와 (나)에는 글쓴이가 소개하고 있는 토인비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가)에서는 토인비가 고대 중국 문명의 예를 들어 '가혹한 환경이 인간을 위협하면 그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고, (나)에서는 청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가혹한 환경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다'며 토인비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토인비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 (다)에 제시된 쥐 격리 실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관련 자료를 찾아야 한다.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이 글이 실린 책을 도서관에서 찾은 후, 그 책의 참고 문헌을 확인하면 된다. 그 참고 문헌에는 실험 내용이 실려 있는 책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쥐 격리 실험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을 적절히 서술하였다.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을 적절히 서술하였다.	
<조건>에 맞게 두 가지 방법을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